

HERMÈS BY NATURE



Publicis EtNous

Style

조선일보

NOVEMBER 2016
vol.149



FENDI.COM

FENDI



CHANEL

FINE JEWELLERY



COCO CRUSH

RINGS IN DIAMONDS, WHITE AND YELLOW GOLD

OMEGA



Globemaster

THE WORLD'S FIRST MASTER CHRONOMETER

Proven at the industry's highest level, the OMEGA Globemaster has been rigorously tested and officially certified by the Swiss Federal Institute of Metrology (METAS). Along with exquisite design, it combines superior precision with anti-magnetic resistance of 15,000 gauss, proudly setting a new standard in watchmaking. For OMEGA, this is just the beginning.

www.omegawatches.com/globemaster



청담 부티크 · 신세계 강남점 · 롯데 잠실점 · 현대 무역센터점 · 현대 목동점 · 현대 판교점 · 현대 대구점 · 현대 부산점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아트 오브 클립 (Art of Clip) 전시
2016년 10월 28일 - 11월 13일
신세계 본점 부티크



48



18



24



12

- 18 **A GOOD DESIGN FOR KIDS** 최근 더욱 풍성한 어린이 디자인 제품을 주목하자. 손때가 묻으면 더 멋스러워지는 가구이자 장난감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아이보다 더 마음 설레는 부모들이 많을 듯하다.
- 20 **MADE TO ROSE** 보다 부드럽게, 진중하게, 우아하게. 로즈 골드 기품을 담은 워치 컬렉션의 새로운 매력.
- 22 **THE WONDER OF GEMS** 세심함과 탁월함, 한계가 없는 상상력과 노력으로 새로운 숨결을 내뿜는 하이 주얼리 컬렉션.
- 24 **MY FAIR LADY** 우아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레이디라이크 룩을 완성하는 2016 F/W 자암바티스타 발리(Giambattista Valli)의 섬세하고 화려한 오프 쿠튀르 터치.
- 32 **IDENTITY MATTERS**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로고 장식 아이템과 함께 레트로 무드를 만끽해보자.
- 33 **DARING ATTRACTION** 강렬한 오라와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볼드하고 유니크한 각테일 링.
- 34 **CREATIVE LEADERS' ENCOUNTER** 뉴 7 시리즈에 어울리는 앰배서더 중 한 명으로 선정된 건축가 백준범(정조건축 전무)은 모든 사물과 상황에 열린 유연한 사고와 태도를 지니고 있다.
- 36 **SUBLIME RADIANCE** 샤넬 코스메틱의 하이엔드 안티에이징 라인인 수블리미디지가 출시 10주년을 맞았다.
- 38 **MADE IN UMBRIA** 몬테팔코는 레드 와인의 명작으로 꼽히는 몬테팔코 시그라티노의 본고장이자, 'Made in Italy'의 리더인 이탈리아 럭셔리 여성 브랜드 피비아나 필리피가 탄생한 곳이다.
- 40 **BIG MATCH** 휴대폰과 립스틱 하나 겨우 들어가는 프티 백은 잠시 옷장에 넣어두자. 당신의 스타일에 무게를 실어줄 빅 사이즈 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으니까.
- 41 **HER TIME** 오메가의 빈티지 타임피스 컬렉션 전시회까지 이어진 특별한 여성 워치 이야기.
- 42 **SHINE YOUR LIGHT** 존재 자체만으로도 근사한 오브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반짝임을 담은 스와로브스키의 티라이트 컬렉션을 소개한다.
- 43 **A MUNIFICENT PATRON OF ART** 올해 제정 25주년을 맞은 몽블랑 문화 예술 후원자상 시상식은 몽블랑의 집념을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자리였다.
- 44 **AGING DEFEND** 어느덧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온다. 남자의 피부에도 안티에이징과 보습이 필요한 순간이다.
- 45 **MOISTURE POWER** 럭셔리 스킨케어의 강자, 데코르테에서 선보인 리포솜 트리트먼트 리퀴드가 론칭 1주년을 맞았다.
- 46 **EDITOR'S PICK** <스타일 조선일보>가 선정한, 과감한 컬러 아이템과 감각적인 향을 담은 뷰티 아이템.
- 47 **RESET YOUR SKIN** 데코르테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탄생한 신개발 복합 성분 아이피-솔루션(ip-Solution)이 함유된 '아이피 샷'으로 피부에 드리운 노화의 시인을 초거화하자.
- 48 **MARVELLOUS MELBOURNE**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호주라는 것을 아는지? 글드러시 시대의 고풍스러움과 21세기의 혁신이 공존하는 멜버른에서 차우와 낭만을 경험했다.

Style 조선일보 Issue.149 November 2016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배미진 mj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에디터 | 이지연 easyyear@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어시스턴트 | 김수민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박승현 shpark@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 · 제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사당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나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RICHARD MILLE



CALIBER RM 07-01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9, 신라호텔 지하 1층 • 02) 2230 1288

www.richardmille.com

© Didier Gaurdon



포토그래피 박인주

Jewel PERFECT TOUCH

장인의 완벽한 균형미와 세공력의 완결체인 컬러풀한 하이 주얼리 컬렉션.

(왼쪽부터) 젤스톤의 마스터로 불리는 불기라의 컬러 테라져 하이 주얼리 네크리스, 오벌과 라운드 사파이어와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까지 다양한 컬러의 향연을 만날 수 있다. 입체감이 뛰어난 카보숑 컷 핑키 컬러 사파이어를 세팅한 이어링, 모두 불기라. 무한 반복되는 원형으로 새로운 아름다움을 제시한 부통 도르 링 **빈클러프 이어링**, 에디터 **베이지**



Fashion FOR YOUR BAGS

평범한 가방도 스트랩 하나로 달라질 수 있다. 시계 스트랩을 기본이나 스타일에 따라 교체하듯 이제 가방 스트랩도 록에 맞게 포인트를 줄 것. 물론 스트랩 하나가 웬만한 가방 가격을 호기하지만, 이미 웨이팅 리스트가 생길 정도로 인기 아이템이라는 사실! 에디터 권유진

(세로로 놓인 제품 왼쪽부터 차례대로) 가죽으로 섬세하게 표현한 꽃 장식을 다한 화이트 컬러의 나스트로 플라워 스트랩 97만원 **프라다**, 알록달록한 컬러를 입힌 인체적인 스커머 스타드 장식이 눈에 띄는 스트랩 유 가방 스트랩 1백35만원 **벤디**, 반짝이는 플라워 크리스탈 장식이 돋보이는 파스텔 블루 컬러의 사파노 크리стал 플라워 스트랩 1백41만원 **프라다**, 기타 밴드를 연상시키는 코트 소재의 넓은 스트랩으로, 에스노한 패턴과 록 스타드 장식이 포인트다, 1백6만원 **발렌티노**, (가로로 놓인 제품 윗부터 아래로) 작은 비즈로 에스노한 패턴을 완성한 화이트 스트랩과 하늘색 스트랩 각 22만9천원 모두 **홀로 랩프로렌**, 에디터 권유진



포토그래피 박인주

Beauty MERRY HOLIDAY

뷰티 컬렉션들이엔 지금 이 순간만큼 기다려지는 시즌이 없을 것이다. 바로 리미티드 에디션의 꽃이라 불리는 '올리데이 에디션'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니까. 시즌 한정 컬러 뷰티 유명 아티스트와 협업해 만든 매력적인 패키지까지, 지금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뷰티 브랜드의 올리데이 컬렉션을 소개한다. 에디터 이지현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사벨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 루카이 파파가 개발한 첫 번째 리브르 컬렉션으로 자연스러운 핑크와 코랄, 레드 색상에 경쾌한 터치를 대했다. **사벨 슈 광드프랑스 360 아메호프라이블 블로셔**는 건강한 윤기를 선사하는 정밀적인 핑크 컬러로, 광채에 하이라이트를 주어 생기 있는 피부를 연출할 수 있다(6g 5만8천원). 그런가 하면, 갈랑은 브랜드의 뮤즈 나탈리아 보디아 노비가 참여, 인도제국을 떠올리게 하는 올리데이 컬렉션을 출시했다. 인도 궁전의 모자이크 장식을 연상시키는 3가지 컬러 펄 파우더를 함유한 브랜드 시그니처 아이섀도우 구슬 파우더, **갈랑 에스테오리트 펄 드 레전드 라이드 리빙링 펄 파우더**를 선보인 것(25g 8만7천원). 이와 함께 출시된 골드와 핑은 블루 사파이어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피프팅 파우더 **갈랑 수플레 돌드 드 슬리피**는 얼룩덜룩 아니라 헤어와 손등에 뿌려 그윽한 향을 발산할 수 있다(20g 13만6천원). 갈레르노 보트는 뉴욕 배이스의 간헐퍼라리 아티스트 에슬리 룬소와 함께 갈레르노아티스트를 진행했다. 대담하고 우아했던 1920년대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갈레르노 보트 레자세를 컬렉션 아이 컬러 팔레트**의 패키지와 함께 컬러 팔레트 또한 한층 과감하게 선보인다(9g 15만8천원). 세계적인 일러스트레이터 루벤 툴레도의 특별한 합선으로 완성한 **에스티 로더 엔비 림글로스 컬렉션**도 눈여겨볼 만하다. 15개의 미니 시이즈 림글로스를 한 세트에 선보이며, 솔리드 컬러부터 펄이 가미된 글로시한 색상까지 대체로 꾸민(4.6mX15 7만원). 화려한 패키지를 논하더라도 이 브랜드도 빼놓을 수 없다. 이번 시즌 맥에서는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위해 매력적인 핑크 도트로 꾸민 디자인을 선보였다. 크리스마스 캔디 레드와 핑크, 그리고 토로 브라운까지 다양한 컬러의 파인먼트와 반짝이는 글리터로 구성된 **맥 너크라프 스위트 브론즈 피그먼트 앤드 글리터 키트**가 그것(피그먼트 2.4gX3, 글리터 1.9g 5만8천원). 에디터 이지현

INSIGHT

편잡부가 염산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Focus 싱글 몰트위스키 세계의 살아 있는 전설, 매혹의 페어링을 선사하다

'필요 이상으로 잘 만든', 향부로 동원하기는 힘든 이런 '센' 수식어에도 상당히 많은 싱글 몰트위스키 애호가들이 고개를 가로놓지 않는 브랜드가 있다. 1843년 스코틀랜드 하일랜드 지방에서 탄생한 싱글 몰트 브랜드 글렌모렌지(Glenmorangie). 이미 한국에도 열혈 팬을 다수 거느리고 있는 글렌모렌지의 면모를 제대로 소개하는 행사가 서울 남산 소월길에 자리한 시가 바(bar) 피에르 시가에서 열렸다. 2016년 국제 위스키 대회에서 '올해의 마스터 블렌더' 상을 받은 빌 럼스던 박사(Dr. Bill Lumdsden)가 그의 자식과도 같은 글렌모렌지의 주요 프리미엄 제품군을 직접 소개한 흔치 않은 자리였다. 이날 럼스던 박사는 글렌모렌지의 하우스 시그니처인 '글렌모렌지 오리지널'로 시작해 빌 럼스던 박사가 만든 '레어 익스프레스션' 제품인 '글렌모렌지 18년', '글렌모렌지 큐터 섀주리(25년산)', '글렌모렌지 시그넷(Signet)' 순으로 테이스팅 세션을 이끌었다. '와인 같은 우아함을 갖추었다는 표현을 질로 쏟아지게 한 깔끔하고 섬세한 오리지널, 목을 감싸는 리치한 느낌과 꿀, 몰트, 꽃향기가 조화를 이루는 개성 있는 풍미가 일품인 18년산, 1년에 단 한 번만 한정 생산한다는 귀히디귀한 위스키인 만큼 풍부한 풍미가 인상적인 25년산, 그리고 마차와는 독특하고 화려한 요소들의 조합으로 마차이즘을 거느린 시그넷과 함께 그에 절묘하게 들어맞는 페어링 메뉴가 장식했다. 시그넷을 '혁신'이라고도 일컫게 하는 특장적인 요소는 강하게 로스팅 '초콜릿 몰트'다. 럼스던 박사가 평소 즐기던 자메이카 블루 미운틴의 아로마를 재현하고자 글렌모렌지의 캐드블 보리를 커피콩과 유사한 방식으로 로스팅해낸다는 아이디어로 탄생했다. 이런 배경에서 발로노 초콜릿 72%, 발집, 시그넷 위스키 봉봉, 초콜릿 무스와 오렌지 콤포트, 자메이카 블루 미운틴 커피 에스프레소, 그리고 쿠바산 시가 볼라바로 투보 1으로 페어링 메뉴가 구성됐는데, 글렌모렌지의 다양한 스펙트럼과 깊은 풍미를 부각하는 탁월한 선택이었다. 에디터 고성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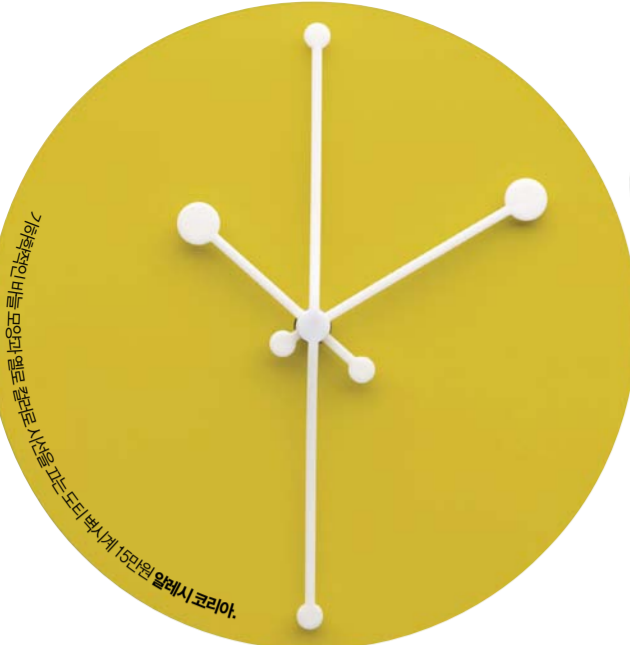
Exhibition 에르메스 <Wanderland(파리자영의 신화)>전, 디뮤지엄에서 무료 공개

최근 수년간 내로라하는 명품 브랜드들의 정수를 보여주는 전시가 대중적으로도 꽤나 인기를 끌었다. 그건 아마도 전시 콘텐츠가 단지 브랜드의 제품 홍보 수준이 아니라 유서 깊은 이야기와 전시 미학을 통해 문화적 맥락과 정인 정신이 깃든 예술혼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번에는 에르메스의 정수를 전시 공간에서 느끼볼 수 있는 <Wanderland(파리자영의 신화)>전이 서울에서도 열린다. 앞서 런던 시치 갤러리, 파리 포르 드 스페리노 등에서 선보였던 전시로, 오는 11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서울 한남동 디뮤지엄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 전시의 테마가 '신화(Sherie)'인 이유는 에르메스 총괄 아티스트 클레르 피레르-오벨렉스 뒤마의 말을 빌리자면 "도시를 가는 행위 자체가 아름다우면서 자유로운 예술이며 에르메스를 대표하는 중요한 본질이기도 해서"란다. 또 전시 큐레이터의 설명을 따르면 예상치 못한 길 발견하는 즐거움을 찾는 파리자영다운 신화의 두 가지 핵심 요소는 '꿈꾸는 것과 자유로운 영웅'이라고. 이런 주제를 담아가는 요소들을 공간에 마칭적으로, 그리고 '에르메스답게' 펼쳐내는 만큼 자연적, 기방, 여행 슥작 케이스 등 에르메스 박물관과 함께 컬렉션 등에서 모은 유서 깊은 각종 오브제를 소개하고, 다양한 색상, 소리, 이미지를 통해 꿈을 꾸는 듯한 즐거운 경험을 유도하도록 세심하게 기획했다. 여러 분야 아티스트들의 작품이 놓인 11개의 방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서는 서로 다른 미디어로 표현된 다채로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파리 광장, 숨겨진 통로, 오브제가 존재하는 카페 등을 전하면서 색다른 경험을 즐길 수 있다. 에디터 고성현



Tod's Korea Inc. 02 3448 8201





중요한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특별히 디자인된 시계. 15만원. 알레시 코리아.



중앙에 헤드폰을 꽂으면 스피커처럼 음향을 증폭시키는 우리나라 핸드메이드 유리 오브제 25만원. 홀메가드 by 이노메사.



인체 공학적인 설계로 빛의 방향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NUP 테이블 램프. 핸드기 디자인했다. 75만원. 루이스 홈센 by 한샘 텍사스.



비대칭 디자인 모듈 산천으로 원하는 방향과 모양으로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슬라이드 산천 모듈 1개당 45만원 라코 by 하농.

for her Selection

기하학적인 지오메트릭, 미니멀한 스트라이프 등의 패턴을 활용하면 시크하면서도 모던한 공간을 완성할 수 있다. 임팩트 있는 서재 공간을 위한 키아이템. *photographed by moon sung jin*

서재를 홈 카메로 만들어줄 디스틴타 커피 메이커. 무광의 메탈릭한 색상이 세련된 감각을 더해준다. 19만9천원 드롱기.



컬러풀한 목연체 원과 구슬 모양의 투명한 미니 칸테이나는 작은 사무용품 보관하기에 적합하다. 3만2천원 굿윙 by 루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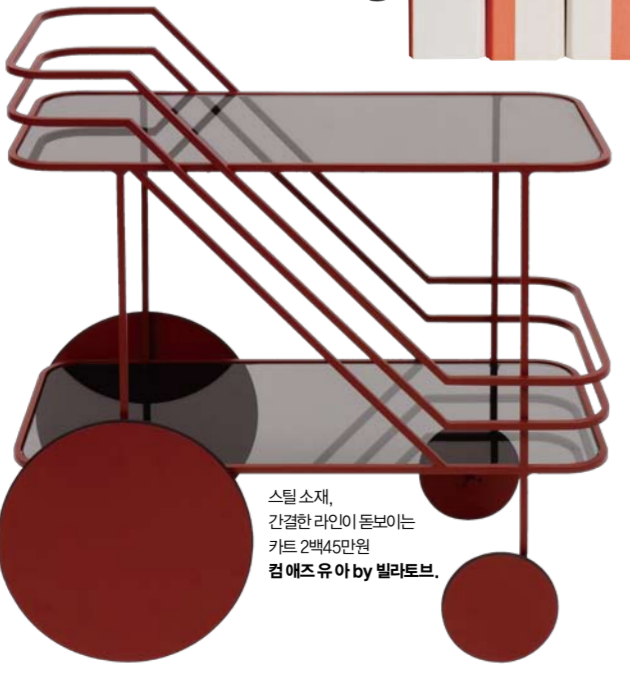
상판 아래 수납공간을 마련해 정리 정돈을 손쉽게 해주는 쿠퍼티노 책상 1백33만9천원 보관셀.



화가 사디 오지스가 1959년 강철과 그물망으로 디자인한 피스넷 체어를 패브릭 에디션으로 재탄생시킨 제품. 3백만원대 윌터 놀 by 두오모.



세 가지 별 모양의 책장 시리즈 중 하나인 에이프릴. 공간에 위트를 더하고 싶다면 추천한다. 1백만원대 보날도 by 웰즈.



스틸 소재, 간결한 라인이 돋보이는 카트 2백45만원 컴 애즈 유아 by 빌라트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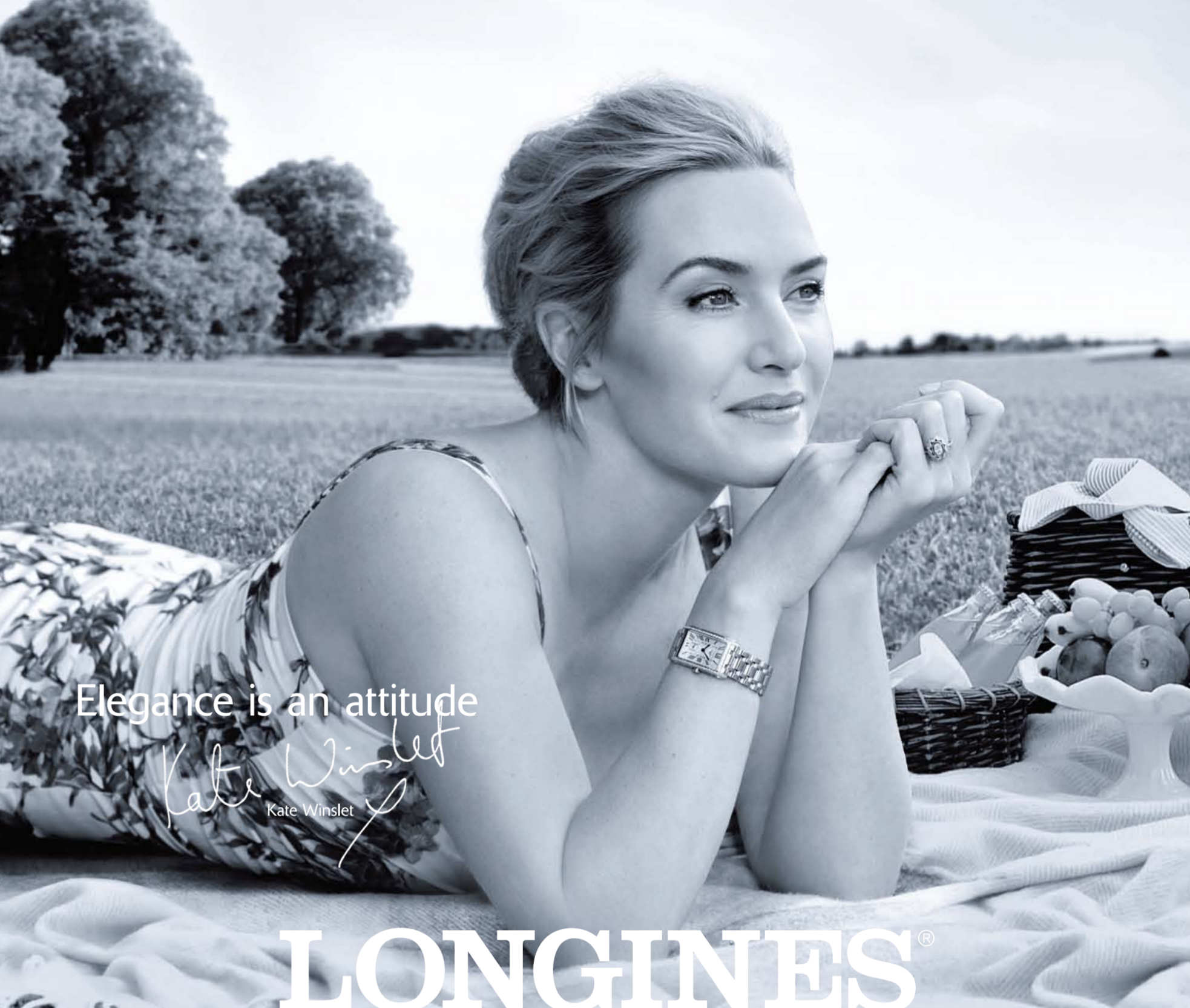


자유롭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고밀도 쿠션재를 장착해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주는 실렌시오 시파라 전동 리클라이너 3백만원대 코이노 by 도무스 디자인.

톤 다운 컬러 배색의 북 바인더는 네덜란드 디자인 듀오 스톨렌 & 바이링스가 디자인했다. 4만4천원 헤이 by 라골레트.

- 웰즈 02-511-7911
- 두오모 02-516-3022
- 보관셀 02-545-4580
- 알레시 코리아 02-6299-5684
- 이노메사 02-3463-7710
- 하농 02-515-2626
- 한샘 텍사스 070-4304-6456
- 루밍 02-6408-6700
- 드롱기 080-488-7711
- 도무스 디자인 1566-5629
- 라골레트 02-548-3467
- 빌라트브 02-794-9376

촬영: 이선영(리빙) / 윌리엄(스타트)



Elegance is an attitude

Kate Winslet
Kate Winslet

LONGINES®



Longines DolceVita

론진 부티크 | 신세계 본점 02 310 1597 롯데 영등포점 02 2164 5194
AK플라자 수원점 031 240 1123 현대 판교점 031 5170 2186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경기점 센텀시티점 의정부점 충청점
갤러리아백화점 명동관 EAST 타임월드 | 현대백화점 울산점 부산점 | 아워패션 롯데월드몰
롯데면세점 본점 코엑스점 부산점 제주점 | 신라면세점 본점 제주점 인천공항점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 신라아파트면세점 | 갤러리아면세점 63 | 동화면세점 | 엔타스면세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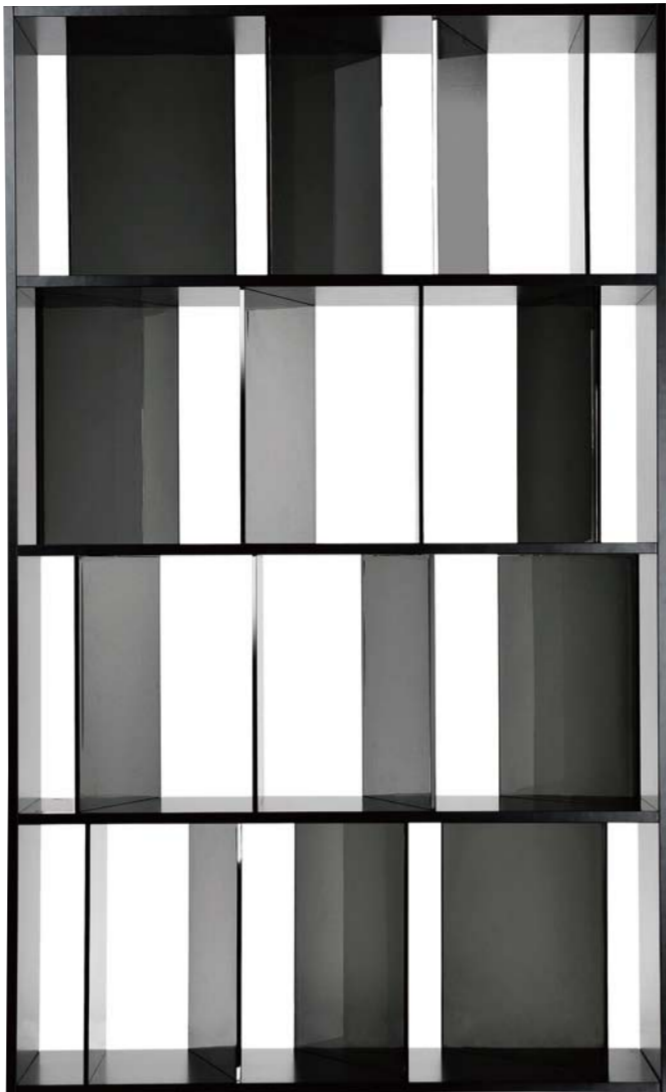
호두나무에 알루미늄으로 포인트를 준
칠 클락, 20세기를 대표하는
디자이너 조지 넬슨의 작품이다.
64만원 비트라 by 에이치픽스.

가늘어져 보이지만 완벽한
균형미를 자랑하는 클로세 테이블
램프 40만원 톱포헤이 by 샹더원.

우량 플라스틱을 사용해
디자인으로 디자인한 바베큐는
일할 시에 간편한 **백스 코리야**.

for him Selection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공간, 서재. 미니멀한 디자인, 묵직한
컬러의 리빙 아이템을 활용해 모던한 감각의 서재를 완성해보자.
photographed by moon sung jin



원하는 대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칸막이를 장착한 선다열 책장. 폴리카보네이트와
유리를 사용해 반투명한 소재감이 특징이다. 1백만원대 **카르텔**.



일바 일도의
디자인을 헬라
용어 위스가 블랙
컬러로 재해석해
새롭게 출시한
901 티 트롤리
3백41만원
아트텍 by 루빙.



간단한 타자로
노트와 스케치를
종이에서 모바일
기기로 전송할 수
있는 어그먼트드
페이퍼 세트 85만원
몽블랑.



그레이 컬러의 슬라
다. 웨어 머그스들 사이즈
4만원대 **휘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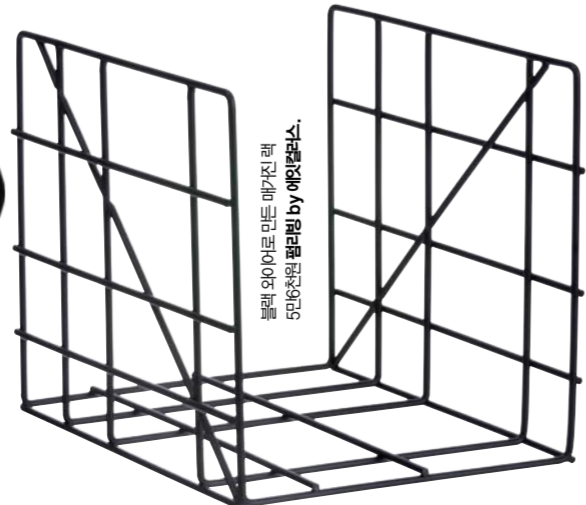


테이블 상판을 움직일
수 있게 디자인한
비자노 테이블
2백23만원 **몰테니&C**.



서랍과 책장을 일체형으로 제작한 나무 책상 5백만원대 **라비1920 by 에이스 에비뉴**.

진행 **이연용(리빙)** **정원(바스킷)**



블랙 와이어로 만든 **에가진** 백
50만원대 **몽블랑 by 에이치픽스**.

블랙 컬러 가죽과 스틸 소재 다리를
결합해 완성한 시티 하이백 스타
베이스 리클라이너 2백만원대
스트레스리스 by 에이스 에비뉴.

루빙 02-599-0803
자라홀 02-546-7325
몽블랑 1670-4810
에이치픽스 02-3461-0172
헨터원 070-8881-8006
렉스 코리아 02-968-4321
카르텔 02-517-2002
에이스 에비뉴 02-541-1001
에잇플러스 070-8654-3637
몰테니&C 02-543-5093
휘슬러 080-400-4100

ACE
편안함을 넘어 위대함으로 기록될
단 하나의 매트리스

THE HERITAGE OF SLEEP SCIENCE
ACE HERITZ



럭셔리, 혁신에 대한 최고의 찬사.

THE ALL-NEW BMW 7 SERIES. DRIVING LUXURY.

앞선 세계를 리드하는 당신에게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력의 정수를 보여주는 BMW 레이저라이트와 BMW 디스플레이 키
그리고 전 좌석에 적용된 마사지 시트는 더 편리하고 편안한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이 시대의 리더를 위한 진정한 럭셔리, BMW 뉴 7시리즈입니다.

BMW EXCELLENCE CLUB은 오직 BMW 뉴 7시리즈 고객님을 위한 멤버십으로
프리미엄 서비스와 특별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BMW EFFICIENT DYNAMICS.

750Li xDrive 8.4km/l 450hp

BMW 커뮤니케이션 센터 (080) 269-2200 BMW 공식 홈페이지 www.bmw.co.kr BMW 페이스북 www.facebook.com/BMWKorea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BMW 740Li xDrive 배기량 2998cc, 공차중량 2015kg, 자동 8단, 복합연비 9.7km/l (도시연비 8.4km/l, 고속도로연비 11.9km/l) 복합CO₂배출량 179g/km, 4등급 750Li xDrive 배기량 4395cc, 공차중량 2155kg(4인승)/2145kg(5인승), 자동 8단, 복합연비 8.4km/l (도시연비 7.1km/l, 고속도로연비 10.6km/l) 복합CO₂배출량 209g/km, 5등급 *표시된 에너지소비효율은 해당 시리리즈의 예시이며, 모델 사양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에너지소비효율은 가까운 딜러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의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모델별 옵션 적용 사항은 가까운 BMW 공식 딜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눔, 더 나은 미래의 시작입니다. BMW 코리아 미래재단

The all-new
BMW 7 Series
bmw7series.co.kr



BMW 레이저라이트.
BMW LASERLIGHT.



BMW 디스플레이 키.
BMW DISPLAY KEY.



BMW 앞좌석 마사지 시트.
BMW FRONT MASSAGE SEAT.



WINNER
2016 WORLD CAR AWARDS
WORLD LUXURY CAR

자세한 정보는 BMW 7 Series 마이크로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www.bmw7series.co.kr



어린이를 위한 행복한 디자인

a good design for Kids



디자인은 사랑을 기반으로 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마음을 담백 담은 키즈 제품은 디자인뿐 아니라 기능과 컬러까지 사랑스러워서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진다. 필립 스타크, 피에로 리소니, 스테파노 조반노니 등의 참여로 최근 더욱 풍성해진 어린이 디자인 제품을 주목하자. 손때가 묻으면 더 멋스러워지는 가구이자 장난감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아이보다 더 마음 설레는 부모들이 많을 것 같다.

카르텔과 마지스의 키즈 라인에 격돌하다

명작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첫눈에 보자마자 갖고 싶은 디자인, 우리를 감탄하게 만드는 디자인은 사랑으로 만들어진다. 어떤 대상에 맹목적 애정이 없다면 그토록 디자인을 고민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애정이 없다면 아무리 고심해도 명작은 탄생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많은 디자이너가 조국에 대한 사랑,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디자인에 대한 사랑을 시각화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그중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순수한 애정은 어떤 종류의 사랑에도 뒤지지 않는다. 부모가 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말은 디자인 세계에서도 통용된다. 어린이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으로 디자인에 접근한다면 놀랄 만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마지스(Magis)의 어린이 라인 미 투(Me Too)는 유명 디자이너 마크 뉴슨(Marc Newson), 하비에르 마리스칼(Javier Mariscal), 오이바 토이카(Oiva Toikka), 에로 아르니오(Eero Aarnio) 등이 만든 사랑스러운 제품을 매년 선보이고 있다. 올해는 마지스 창립 40주년을 맞아 콘스탄틴 크리치치(Konstantin Grcic)가 노새 모양의 디자인 제품 에토레(Ettore)를 출시했다(www.magisdesign.com).

카르텔(Kartell)은 2016 밀라노 디자인 위크 전시와 더불어 새롭게 어린이 라인을 출시했다. 스타 디자이너 페루초 라비아니(Ferruccio Laviani), 피에로 리소니(Piero Lissoni), 필립 스타크(Philippe Starck), 디자인 회사 낸도(Nendo)가 참여해 조용히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마지스에도 도전장을 던졌다. 흥미로운 것은 카르텔은 이미 1964년에 세계 최초로 전체를 플라스틱으로 만든 4999라는 어린이 의자를 선보인 바 있는 선구자라는 점이다. 디자이너 마르코 자누소(Marco Zanuso)와 리하르트 자퍼(Richard Sapper)가 함께 만든 이 의자는 가볍고 모던하면서도 유쾌한 색상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난 후 스티디 선보인 카르텔 키즈 라인은 가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나 장난감의 역할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립 스타크의 플라카보네티 시스 에어웨이(Airway)는 활동적인 어린이를 위한 좋은 선물이 될 것 같다. 공중에 떠 있는 이 투명함 그네를 과연 마다할 아이가 있을까? 피에로 리소니의 자동차 디스코볼란테(Discovolante)와 트랙터 테스트칼다(Testacalda)는 어린이보다 아빠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 매력적인 제품이다. 낸도가 선보인 투명함 H-호스(H-Horse)와 컬러풀한 스몰 스마일(Smile) 시리즈는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진다. 특히 이번 어린이 라인은 아이들의 자율성을 북돋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데, 페루초 라비아니의 클립 클랩(Clip Clap)은 플라스틱 블록으로 테이블과 책상의 높이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개념과도 같은 제품이다. 또 카르텔의 시그너처 제품인 투명함 플라스틱 의자인 루 루 고스트(Lou Lou Ghost)의 키즈 라인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어린이의 이름과 그림, 짧은 글귀를 새길 수도 있다고 하니 참조하시라(www.kartell.com).

21세기와 20세기 디자이너의 키즈 라인은 어떻게 다른가?

카르텔과 마지스 외에도 디자이너 스테파노 조반노니(Stefano Giovannoni)가 가구 브랜드 키보(QeeBoo)를 론칭하면서 어린이 의자를 포함시켰고, GTV(Gebrüder Thonet Vienna) 역시 디자이너 그룹 프론티(Front)의 참여로 흔들 목마를 선보였다. 스테파노 조반노니의 토끼 의자(Rabbit Chair)는 토끼의 귀에 기대어 앉는 재미있는 제품으로, 의자가 아니라 인테리어에 액센트를 선사하는 오브제로도 손색이 없다. 16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으며 LED 조명이 내장되어 램프로도 사용 가능하다. 유럽에서는 출시되자마자 인기 제품 반열에 올랐다. 귀여운 데이지 램프(Daisy Lamp)와 체리 램프(Cherry Lamp)도 어린이 방에 잘 어울린다(www.qeeboo.com). 프론티의 흔들 목마 푸리아(Furia)는 유선형의 부드러운 디자인과 감각적인 컬러의 매치로 관심을 모았다(www.gebruederthonetvienna.com). 21세기 어린이 디자인 제품의 부흥이 반가운 한편, 20세기의 키즈 디자인에 대해 알고 싶어진다. 금호미술관 컬렉션 전시 <Big: 어린이와 디자인>에서는 과거의 디자이너들도 어린이에 대한 애정이 극진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20세기 디자이너들의 작품은 놀이용과 교육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물론 아이들은 일상의 대부분을 놀이로 보내며, 그것을 통해 학습하기 때문에 굳이 경계를 나누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디자이너의 의도로 이를 분류한 전시였다. 살아 있는 디자인의 거장 엔초 마리(Enzo Mari)의 시스를 만들 수 있는 거대한 퍼즐과 나나 디젤(Nana Ditzel)의 유아용 식탁 의자, 장난감이자 심리 치료용으로 이용되는 레나테 뮐러(Renate Müller)의 동물 인형, 찰스 & 레이 임스(Charles and Ray Eames) 부부의 합판 코끼리 스툴, 선명한 색과 견고함이 특징인 코 베르주(Ko Verzuu)가 디자인한 ADO사의 장난감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감동을 준다. 특히 덴마크 최초의 여성 가구 디자이너인 나나 디젤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1950년대부터 어린이 가구에 대한 실험을 시작했다.



1 덴스크에서 판매 중인 한스 베그네르의 피터스 체어, 2, 4 금호미술관 컬렉션 전시 <Big: 어린이와 디자인> 전시장, 3 GTV는 디자이너 그룹 프론티의 참여로 흔들 목마를 선보였다. 5 디자인 회사 낸도가 선보인 컬러풀한 스몰, 스마일 시리즈, 6 디자이너 필립 스타크는 이전부터 어린이를 위한 디자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7 카르텔은 2016 밀라노 디자인 위크 전시와 더불어 어린이 라인을 출시했다. 스타 디자이너 페루초 라비아니, 피에로 리소니, 필립 스타크, 디자인 회사 낸도가 참여해 시선을 모았다. 8, 10 스테파노 조반노니의 체리 램프와 데이지 램프. 어린이 방을 위한 최고의 인테리어 상품이 될 것 같다. 9 디자이너 스테파노 조반노니가 브랜드 키보를 론칭하면서 사랑스러운 토끼 의자를 포함시켰다.

다. 나무의 색깔과 질감을 살린 부드러운 곡선과 단순한 형태로 식탁용 의자, 요람 등 다채로운 유아 가구를 선보였다. 반면 루이지 콜라니(Luigi Colani)와 장 프루베(Jean Prouvé)는 학습용 가구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는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의 성장과 더불어 1930년대 신소재인 스틸 파이프와 알루미늄의 개발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이었다. 스스로 디자이너라기보다 엔지니어라고 생각했던 장 프루베 역시 학교 건축과 어린이 가구에 관심을 가졌는데, 효율도 함께 고려했기에 대량생산되어 많은 어린이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다(www.kumhomuseum.com).

어린이에게 디자인에 대한 고정관념은 없다

최근 유럽에서 출시된 키즈 라인과 20세기 디자인 거장의 작품을 감상하다 보니 실제 경험하고 싶은 호기심이 생긴다. 오늘 당장 구입하거나 만져볼 수 있는 어린이 디자인 제품은 없는 걸까? 일단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로 가볼 것을 권한다. 곳곳에 방문객을 위해 유명 디자이너의 의자를 설치했다는 것을 아는 이들이 별로 없어 아쉽다. DDP 가구 컬렉션 중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가구는 포니(Pony), 시스(Seesaw), 토마토 체어(Tomato Chair), 포뮬러 의자(Formula Chair) 등이 있는데, 지금 일부는 수리 중이다. 특히 인기 있는 의자는 피라톤(Pratone)과 스핀 체어(Spun Chair)다. 프라톤은 조르조 케레티(Giorgio Ceretti), 피에로 데로시(Piero Derossi), 리카르도 로소(Ricardo Rosso)의 작품으로 140cm의 거대한 폴리카보네이트 잔디 모양이다. aA디자인뮤지엄 감명관 광장은 성인용 이 의자 앞에서 당황하지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몸을 눕히는 이야기를 한 바 있다. 그만큼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디자이너지만 아이의 시선에서 보면 의심할 나위 없는 의자인 것이다. 스핀 체어는 D뮤지엄에서 개인전을 가진 영국 디자이너 토머스 헤더윅(Thomas Heatherwick)의 작품이다. 좌우가 팽이처럼 대칭을 이루어 360도 회전이 가능하기에 성인에게도 즐거움을 선사한다(www.seoul2design.or.kr).

덴마크 디자이너의 작품, 키즈 클래식이 되다

덴스크, 모벨랩, 이노메사 같은 디자인 전문점에서 거장들의 어린이용 제품을 만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한스 베그네르(Hans Wegner), 아르네 야콥센(Arne Jacobsen), 베르너 판톤(Verner Panton) 등 덴마크 디자이너들이 만든 어린이 가구가 대부분이라는 것. 이는 20세기에 독보적 활약을 펼쳤던 디자인 거장들의 작품이 이제는 클래식이 되어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스 베그네르의 피터스 체어(Peter's Chair)는 그가 동료 가구 디자이너인 보르게 모겐센

(Børge Mogensen)의 아들 피터의 생일 선물을 만들어서 선물한 이후 호평받으며 정식 모델 생산되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현재는 카를 한센 & 쇠(Carl Hansen & Søn)에서 리프로덕션하고 있고, 매장되는 테이블도 갖추고 있다. 아르네 야콥센의 시리즈 7 체어(Series 7 Chair)의 미니어처와 베르너 판톤의 FPE 체어(FPE Chair)의 미니어처 버전도 인기다. 다만 두 제품은 디자이너가 처음부터 어린이용으로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제조사에서 어린이를 타겟으로 미니어처 버전을 후에 생산한 경우가기는 하다. 아르네 야콥센은 건축과 인테리어를 설계하면서 점차 디자인으로 영역을 넓혔는데, 어린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1950년대에는 몽크가르드 학교의 인테리어와 가구를 디자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는 미니어처 가구만 판매하고 있어 아쉽다. 디자이너 페테르 J 라센(Peter J Lassen)이 설립한 몬타나(Montana)는 플렉서블한 모듈 시스템과 다채로운 컬러를 직접 선택해 성인뿐 아니라 어린이에게도 자신만의 스타일을 창조할 수 있게 하는 디자인 회사다. 예를 들어 어린이용 작은 나무 박스는 색깔이 42가지나 되기에 어떤 컬러를 선택할지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상상력을 북돋아줄 것 같다(www.mobellab.com).

로센달(Rosendahl)에서 만드는 디자이너 카이 보예센(Kay Bojesen)의 목각 인형 시리즈도 1950년대에 만들었지만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 아기가 빨아 먹어도 안전한 천연 오일 로 마감 처리했고, 아홉 군데의 관절이 움직이는 섬세한 기술이 특징이다. 티크로 만들어서 기간이 지날수록 색깔이 멋스럽게 변한다고 한다. 디자인 레터스(Design Letters)에서 제작한 타이포그래피 시리즈는 아르네 야콥센이 디자인한 알파벳 폰트를 이용한 키즈 라인을 선보인다. 2009년에 창립한 덴마크 디자인 회사에서 1937년에 발표된 폰트를 이용해 어린이를 위한 문구용품, 테이블웨어를 만든다는 것이 재미있다(www.innometsa.com).

어린이를 위한 디자인 제품의 장점은 무궁하다.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일상의 행복을 배가한다. 아이와 부모가 공통된 모를 가질 수 있고, 동심을 자극하는 인테리어 소품의 역할도 수행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매력적인 점은 아이가 자라 다시 자신의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내구성이다.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키즈 라인이 탄생하기를 기대해본다. 한국 공예 디자인의 자존심을 가미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글 이소영** (사진 미술에 중독되다), (서울, 그북 출판사) 저자

made to Rose

보다 부드럽게, 잔잔하게, 우아하게.
 로즈 골드의 기품을 담은 워치 컬렉션의 새로운 매력.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위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빈클리프 아펠 피에르 아펠 워치** 브랜드 창립자의 이름을 딴 특별한 워치에 로즈 골드의 품격을 더했다. 본래 피에르 아펠의 지인들에게만 선보인 워치 컬렉션이 1967년부터 브랜드를 상징하는 컬렉션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시간을 뛰어넘는 기품 있는 매력을 담은 워치로, 모던함과 심플함을 느낄 수 있다. 1천7백만원대.

빈클리프 아펠 칼 워치 2008년 첫선을 보인 후 지금까지 브랜드를 대표하는 여성 워치로 자리 잡은, 행운의 메시지를 담은 칼 워치다. 알함브라 모티프의 핑크 골드 칼이 베젤을 따라 유연하게 움직인다. 32mm의 이상적인 로즈 골드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더해 품위와 여성미, 아름다움을 부드럽게 표현했다. 1천4백만원대.

피아제 리앙로이트 갈라 밀라니즈 손목을 감싸는 정교한 스트랩이 돋보이는 매력을 전하는, 피아제를 대표하는 여성 워치 컬렉션인 리앙로이트 컬렉션 워치. 우아한 곡선이 32mm 핑크 골드 라운드 케이스를 휘감고, 그 위에 크기가 다른 다이아몬드가 정교하게 세팅되어 있다. 핑크 골드 칼라의 밀라니즈 메시 스트랩이 마치 실크처럼 손목을 따라 흐른다. 슬라이딩 버클로 손목에 딱 맞게 조절할 수 있다. 4천만원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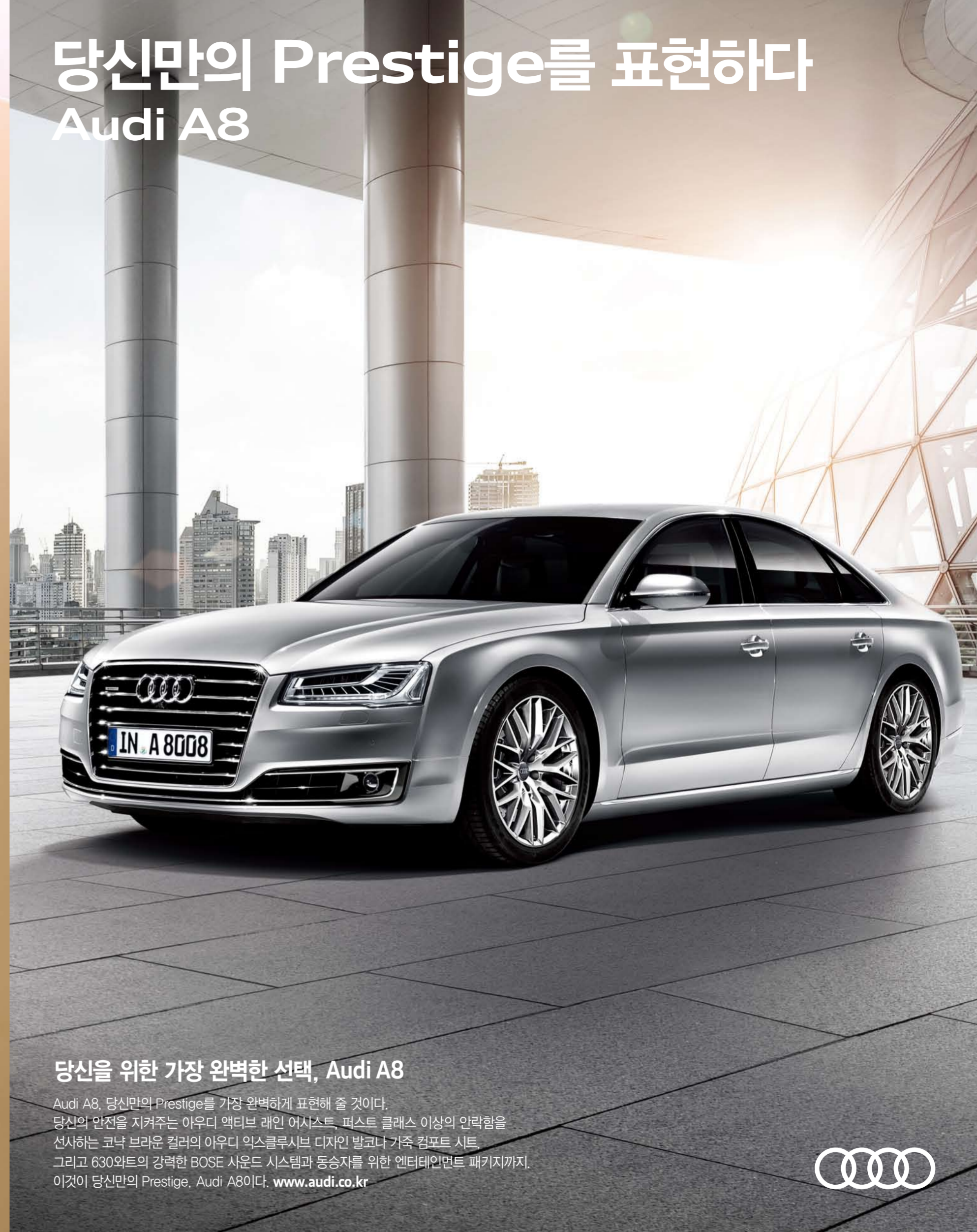
피아제 알티플라노 알고 정밀한 무브먼트를 탑재한 초박형 워치의 상징적인 브랜드인 피아제를 대표하는 알티플라노 컬렉션. 두께가 3mm에 불과한, 세계에서 가장 얇은 자체 제작 무브먼트인 1205P 셀프와인딩 무브먼트를 우아한 핑크 골드 케이스로 감쌌다. 스물 세칸과 나팔링을 더해 비즈니스 워치로 다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린다. 사파이어 케이스 백을 통해 핑크 골드 로터의 움직임을까지 감상할 수 있다. 3천만원대.

볼가리 루체아 컬렉션 워치 빛과 해시계에서 영감을 받은 여성스러운 감성의 루체아 워치. 빛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 luce와 라틴어 lux를 결합해 만든 이름이 인상적이다. 빛살을 연상시키는 다이얼 패턴, 젤스톤으로 장식한 크라운에 로즈 골드 원형 다이얼을 더해 단아하고, 파블 칼라의 엘리자베타 가족이 핑크 골드 소재와 잘 어울린다.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정확히 소장 가치가 높다. 1천2백만원대.

볼가리 옥토 울트라세로 벨로치시오 워치 41mm 사이즈 베젤을 로즈 골드로 차려낸 남성미 넘치는 디자인에 부드러운 매력을 더했다. 올 블랙에 핸즈와 아워 마커를 핑크 골드도 마감했다. 모던하고 인상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 소장 가치, 로즈 골드 소재 대비 매력적인 가격도 장점이다. 1천8백만원대. 에디션 **베미진**

볼가리 02-2056-0171 **빈클리프 아펠** 00798-852-16123
피아제 02-540-2297

당신만의 Prestige를 표현하다 Audi A8



당신을 위한 가장 완벽한 선택, Audi A8

Audi A8, 당신만의 Prestige를 가장 완벽하게 표현해 줄 것이다. 당신의 안전을 지켜주는 아우디 액티브 라인 어시스트, 퍼스트 클래스 이상의 안락함을 선사하는 코냑 브라운 컬러의 아우디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발코니 가죽 컴포트 시트 그리고 630와트의 강력한 BOSE 사운드 시스템과 동승자를 위한 엔터테인먼트 패키지까지. 이것이 당신만의 Prestige, Audi A8이다. www.audi.co.kr



전시장	• 잠실 023430-9100 • 방배 02523-1468 • 인왕 031422-0000 • 창주 043265-7799 • 순천 061746-7733	• 송파 023434-9100 • 미아 02982-2468 • 팜택 031653-3883 • 부산남천 051611-3844 • 순천 063915-0000	• 대치 023415-9100 • 창원 02516-2468 • 일산 031905-1468 • 부산해운대 051995-0000 • 창원 055245-2233	• 용산 02797-1468 • 서초 02521-0000 • 광교 031263-0000 • 울산 052257-3883 • 진주 055924-0000 • 포항 054275-0066	• 목동 022676-1468 • 수원 031241-0033 • 안원 032465-1468 • 대전 042863-8787 • 원주 033766-7786	• 동대문 022247-2460 • 천안 041567-3111 • 대구 053744-7070 • 군산 063461-0110	• 한강대로 02790-1468 • 분당 031743-0000 • 광주 062525-8777 • 춘천 033766-7786	• 도곡동 021564-1468 • 판교 031712-7777 • 목포 061284-1677 • 춘천 033263-4200	
사비센터	• 상수 023425-0033 • 인천유원 032429-2850 • 광주 062524-5959	• 영등포 022672-1468 • 인천유원 032465-1463 • 순천 061724-3500	• 대치 023415-0200 • 수원 031834-0033 • 진주 063290-0000	• 서초 02597-8255 • 부산남천 051628-0056 • 울산 052227-2255	• 논현 02540-3300 • 용산 02798-1468 • 부산사상 051995-0088 • 진주 055754-8118	• 방배 02535-1463 • 대구 053350-8900 • 창원 055245-0999	• 개포 02573-1463 • 대전 042862-8802 • 원주 033764-8787	• 분당 031715-8255 • 천안 041563-5900 • 춘천 033254-8787	• 일산 031905-1463 • 창주 043265-8802 • 제주 064744-0911
서비스센터	• 서초 023486-8255	• 상성 02663-0450							

• 차종 및 표준연비 : 아우디 A8 L 50 TDI quattro (배기량: 2,967cc, 공차중량: 2,100kg, 지동8단), 복합연비: 12.0km/l (도시연비: 10.3km/l, 고속도로연비: 15.0km/l), 등급: 3등급, 복합CO2배출량: 168g/km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주문 사양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the wonder of Gems

다이아몬드와 골드, 아주 미세한 세계에 대한 특별한 탐험.
세심함과 탁월한, 한계가 없는 상상력과 수만 시간의 노력으로 새로운 숨결을
내뿜는 하이 주얼리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물고기의 화려한 움직임을 표현한 부세몬의 아미(Ama) 네크리스와 링, 여성미와 자유로움, 우아함을 신성하게 해석했다. 천교하게 가공해 물결치는 듯한 머더오브벌의 아름다움이 인상적이다. 모두 부세몬, 벨의 움직임을 정교하게 표현한 링크 골드에 페어 셰이프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로 눈을 사로잡고, 50캐럿에 달하는 다이아몬드로 벨의 비늘을 표현한 세르펜티 하이 주얼리 브레이슬릿, 로마 보도블록에서 영감을 받은 퍼넬티지 컬렉션을 하이 주얼리 네크리스로 재해석했다. 건축미와 기하학적인 구조가 대담한 이틸리아 주얼리 브랜드의 독보적인 매력을 담았고, 30캐럿 이상의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했다. 순수한 머더오브벌을 베이스로 사 피아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컬러 트레저 상자 주얼리 드롭형 이어링, 모두 불카린, 네크리스를 따라 흐르는 유기적인 트레아프를 만들어내는 그리프의 독창적인 새털이 돋보이는 하이 주얼리, 리운드 컷 루바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레드 컬러의 기쁨이 느껴지는 인피니티 컬렉션 네크리스와 이어링, 다양한 컬러의 다이아몬드 32,03캐럿을 그대로 여성스럽게 세팅한 카리스(Carissa) 컬렉션 머리 다이아몬드 네크리스, 돋보이는 컬러의 옐로 다이아몬드 컬렉션은 소장 가치가 높다. 사진 속 제품은 5.08 캐럿 에메랄드 컷 옐로 다이아몬드와 5.05캐럿 루신 컷 옐로 다이아몬드 링, 모두 그라프, 독특한 그린 컬러의 크리스토프라이즈 원석과 오피스, 다이아몬드로 독자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보통 도르(Bouton d'Or) 컬렉션 네크리스와 이어링, 작은 원형이 모여 완벽한 균형미를 완성했다. 모두 반클리프 아펠, 에디터 배미진

불카린 02-2056-0171 부세몬 070-7500-7282 그라프 02-2256-6810 반클리프 아펠 00798-852-16123

블랙 퍼 트림을 더한 고급스러운 재킷 가격 미정, 블랙 오버사이즈가 드러난 실루엣을 연출하는 롱 드레스 2백만원대 모두 지암바티스타 발리.

섬세한 주얼 장식이 여성스러운 매력을 배가하는 소프트 핑크 컬러 퍼 코트 가격 미정, 레이스 디테일의 화이트 실크 드레스 가격 미정, 블랙 글라제아티터 부츠 2백만원대 모두 지암바티스타 발리.

MY FAIR LADY

우아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레이디라이크 룩을 완성하는 2016 F/W 지암바티스타 발리(Giambattista Valli)의 섬세하고 화려한 오프 쿠튀르 러지. *photographed by park ja wook*

● sponsored by GIAMBATTISTA VALLI

플라워 모티브를 활용해
정교하게 장식한 쿠키르
재킷과 스커트 모두 가격 미정
자갈벤티스타 발리.



부드러운 터치감을 자랑하는
모헤어 소재의 화이트
컬러 코트 8백만원대,
이너로 착용한 그레이 니트
톱 2백만원대, 화이트
플리츠스커트 2백만원대,
블랙 컬러 글레이저이더
부츠 2백만원대 모두
자갈벤티스타 발리.





아름다운 플라워 프린트와 실크 소재가 매력적인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블랙 컬러 시스루 드레스 7백만원대, 블랙 글래드(에티) 부츠 2백만원대 모두 자압바티스타 발리.



블랙 & 화이트 컬러 트워드 코트 5백만원대, 트워드 스카트 1백만원대, 블랙 컬러 오픈 토 앵글 부티 1백만원대 모두 자압바티스타 발리.

고급스러운 링크 피와 생세하게
완성된 레이스 장식이 우아한 베스트
가격 미장, 선명한 플라워 패턴
레이스를 패치워크한 슬리브리스
톱 앙블랑데, 플라워 패턴 레이스
장식의 스커트 2백만원대
모두 자립비티스타 발리.



강렬한 레오파드 퍼블루중 코트
8백만원대, 우아한 진주 장식을
가미한 재킷과 슬리브리스
드레스 가격 미장, 심플한 블랙
스트랩 슈즈 1백만원대
모두 자립비티스타 발리.

문의 자립비티스타 발리 02-6905-3357



헤어 이선영
메이크업 이영
모델 강승현
스타일리스트 채환석

(맨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데님 진과 함께 연출하면 트렌디한 레트로 룩을 연출할 수 있는, 큼직한 GG 로고가 돋보이는 바깥지 칼라의 가죽 벨트 93만원대 **구찌**,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모노그램 패턴 가죽을 사용해 가볍게 토트백으로도 들 수 있는 미니 사이즈 백백, 16X20cm, 2백만원대 **루이 비통**, 브랜드 이니셜 두 글자로 아이코닉한 장식을 완성한 파우치 백, 12X11cm, 1백5만원 **로저 비비에**, 그라피티 패턴링 로고와 진주, 체인 장식으로 만든 앵클 스트랩이 어우러져 힙한 느낌을 자아내는 스타일레토 힙 가격 미정 **모스키노**, 히프 문 모양의 문체에 원형 로고 디테일까지, 간혹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조이스 백, 32X23cm, 2백50만원대 **로아에**, 브랜드 이니셜 F를 표현한 장금장 치로 포인트를 준, 두 가지 매력을 지닌 더블 바게트 백, 17.5X11.5cm, 2백99만원 **켄디**, 브랜드 로고 이니셜에 꽃 모티프를 얹어 패턴성한 클라치 백, 30X22cm, 45만원 **켄조**, 에디터 **이재현**

켄디 02-1056-9023 **켄조** 02-6905-3506 **루이 비통** 02-3432-1854 **로아에** 02-6905-3470 **모스키노** 02-6905-3892 **로저 비비에** 02-6905-3370 **구찌** 1577-1921

Identity matters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로고 장식 아이템과 함께 돌아온 1980년대 레트로 무드를 만끽해보자. 디자이너의 감각적인 손길을 더해 브랜드 이니셜만으로 만든 간결한 장식, 그래픽적인 로고는 물론, 하나의 패턴이 된, 새로운 방식과 형태로 선보이는 브랜드 로고 장식 아이템,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스타일리스트 유환영 이니셜링 이재현, 김수민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그린 칼라의 투르말린을 중심으로 양쪽에 위용을 상징하는 독수리 모티브를 세팅한 컬러링, 다이아몬드와 라운드 바게트 컷 차보라이트를 세팅했다. 8천원대대 **부세온**, 화이트 골드와 옐로 골드에 차보라이트와 다이아몬드를 상하하게 세팅한 한 쌍의 내비 모티브 바티플라이 차보라이트 칼렉션 링 2천9백만원대 **빈클리프 아펠**, 사탕스러운 이기 사자가 카보숑 컷 투르말린을 안고 있는 디자인의 슈블리 링, 사자의 눈은 에메랄드로 장식했다. 6천원대대 **부세온**, 유니크한 원형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으로 옐로 골드, 깊은 블랙 칼라의 오픈소와 산티로운 그린 칼라의 크리스프라이즈가 조화를 이루는 부통 도르 크리스프라이즈 링 2천9백만원대, 같은 칼렉션으로 핑크 골드, 우아한 자개, 강렬한 레드 칼라의 카탈리안을 세팅한 부통 도르 카탈리안 링 2천9백만원대 모두 **빈클리프 아펠**, 직선 기둥 위에 진주가 떠 있는 것처럼 디자인한 밸런스 링 2개를 합쳐놓은 듯 유니크한 디자인의 밸런스 룩스 링 5백50만원대, 고혹적이고 우아한 블랙 칼라의 9mm 최상급 남양 흑진주를 직선 비에 나란히 세팅한 모던한 디자인이 특징인 밸런스 시그너처 옐로 골드 링 4백30만원대 모두 **타사키**.



daring Attraction

그녀의 손에 자꾸만 시선이 머무는 이유는 바로 가녀린 손가락 위에서 강렬한 오라와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볼드하고 유니크한 카탈리안 링 때문이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미치 실제 장미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살짝 핀 타스로운 장미를 모티브로 한 로즈 링, 총 2.38캐럿, 1백12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2천9백만원대 **피아제**, 사랑, 행복, 부를 상징하는 알함브라 모티브 2개를 각기 다른 크기로 세팅한 오픈 링 형식의 매직 알함브라 비트윈 더 핑거 링 8백만원대, 우윳빛의 우아한 마더모브들과 다이아몬드 시선이 어성스러운 코스모스 꽃 디자인의 코스모스 칼렉션 링 2천1백만원대 모두 **빈클리프 아펠**, 발미안 꽃을 피우는 산비탈고아름다운 신인장을 모티브로 한 칼투스드 카르페 링, 강렬하고 대담하면서 우트 있는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12개의 다이아몬드 꽃을 표현했다. 2천9백만원대 **가르띠에**,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예술과 시, 음악을 관장하는 9명의 자매, 뮤즈를 예찬하는 칼렉션으로 진주한 티티 컷의 시트린 원석이 대담하면서 빈티지한 느낌을 주는 핑크 골드 무사 칼렉션 링 8백만원대 **불가리**, 파리 오페라 가르띠에에서 영감을 받아 상징적인 돛양상과 발코니를 2개의 다이아몬드와 한데 묶은 디자인으로 아름답게 재해석한 파리 누벨라그 칼렉션 링 9천만원대 **가르띠에**, 인도의 미하이라 궁전 지붕을 연상시키는 드라미틱한 티티 컷이 특징인 칼렉션으로 풍성한 볼륨감이 돋보이는 다이아몬드 폴 패세 세팅의 화이트 골드 무사 칼렉션 링 1천4백만원대, 기념비적인 패턴의 인제적인 무채 모티브를 조합해 한 송이 꽃처럼 표현한 다이스 드림 다이아몬드 링 4천9백만원대 모두 **불가리**, 에디터 **배미진**, **권유진**

부세온 070-7500-7282 **빈클리프 아펠** 00798-852-16123 **타사키** 02-3461-5558 **피아제** 02-540-2297 **가르띠에** 1566-7277 **불가리** 02-2056-0172

BMW 뉴 7 시리즈와 건축가 백준범의 만남

creative leaders' Encounter

뉴 7 시리즈에 어울리는 7인의 앰배서더 중 한 명으로 선정된 건축가 백준범(창조건축 전무)은 모든 사물과 상황에 열린 유연한 사고와 태도를 지니고 있다. 변화의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대의 흐름을 읽어 자신의 창의적 감각과 적절하게 조화를 이뤘다. 그러한 영민함이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묵직한 신뢰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백준범 전무는 세계적 건축가 렌초 피아노 설계 사무실과 노먼 포스터의 '포스터+파트너스' 등 유명 해외 기업에서 일하며 수많은 유수의 프로젝트에 참여해왔다. 그런 그의 이름을 세계적으로 알린 프로젝트는 '스페이스포트 아메리카(Spaceport America)'다. 미국 뉴멕시코 주 사막에 세운 이 건축물은 영국 항공 기업 버진 갤럭틱이 세계 최초의 우주선 전용 터미널을 만들기 위해 기획한 프로젝트였다. 기획부터 디자인, 설계, 시공까지 전 과정을 총괄한 백준범 전무는 건물의 본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무엇보다 사막이라는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지금껏 했던 프로젝트 중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만약 흔히 생각하는 미래적인 느낌에만 치중했다면 실패한 디자인이 됐을 수도 있어요. 사막이라는 주변 환경을 최대한 존중해 길고 낮은 형태로 만드는 데 중점을 뒀고, 주제료인 메탈을 적절히 부식시켜 사막의 흙과 유사한 색을 만들어 최대한 튀지 않고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도록 완성했죠."

유연함이 혁신을 만든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기존의 것을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식을 늘 고민하고 새롭게 시도한다는 그는 그것이 곧 혁신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에 현시대의 모든 장점을 반영해 변화시키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BMW 뉴 7 시리즈도 그러한 혁신의 면모를 품고 있어요. 6세대에 이르는 역사를 지닌 모델이면서도 각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술과 소재 등을 적용해 끊임없이 진화해왔으니까요."

그는 운전자의 움직임에 인식해 화면을 터치하지 않고 손동작만으로 차 안의 각종 기능을 실행하고 조절하는 제스처 컨트롤, 뒷좌석의 7인치짜리 태블릿 화면을 통해 인포테인먼트 기능부터 에어컨과 마사지를 포함한 시트 기능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터치 커맨드 등 뉴 7 시리즈가 갖춘 다양한 첨단 기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에 더해 앞으로 주거 시설에도 이런 테크놀로지가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량 상태를 인식, 무선으로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뉴 7 시리즈의 스마트 디스플레이 키처럼, 외부에서도 리모트 컨트롤 기능을 이용해 전기를 켜고 끄는 등, 장기간 여행 시에도 매일 바뀌는 날씨에 따라 커튼을 여닫을 수 있도록 조절하는 기술은 편리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뉴 7 시리즈의 디자인도 그렇다. 공기역학적 측면을 고려해 더 절묘하게 둥글린 곡선, 고속 주행 시 엔진 냉각이 필요할 때 개폐되는 키드니 그릴, 먼 거리의 전방까지 밝고 선명하게 비춰주는 레이저 라이트 등 성능과 안전을 탁월하게 구현한 디자인 변화가 돋보인다. 동시에 BMW 디자인의 창조적 감성이 묻어나는 라인은 여전히 아주 세련되게 잘 살아 있다고 말했다. "지금 뉴 740Li를 타고 있는데, 대형 세단임에도 BMW 특유의 다이내믹한 주행 감각은 여전히더라고요. 차체가 커져 운전하기 쉽지 않을 줄 알았는데, 막상 타보니 아주 스포티하면서도 편안해요. 6세대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이루면서도 '달리는 즐거움'이라는 본질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그런 점들이 탁월한 조화를 이뤄 BMW가 앞서간다고 생각해요."

크리에이터와 고객, 서로의 신뢰 속에 싹트는 지속 가능한 디자인

그가 생각하는 건축가로서 지켜야 할 본질은 '신뢰'다. 클라이언트의 요구 사항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구체화하는 과정이 이어지기 때문에 시작 단계부터 건축가와 고객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연료와 경험, 아이디어가 많은 디자인이라도 좋은 건축이 나올 수 없다. 고객 또한 의뢰한 디자인을 믿고 따라줘야 창의성을 잘 살릴 수 있다. 그는 이런 신뢰 관계가 잘 형성돼 좋은 결과물로 이어진 프로젝트로 앞서 언급한 스페이스포트 프로젝트와 2014년에 진행한 BMW 7 시리즈 라운지를 꼽았다. 3개월간 5개의 BMW 딜러십 매장을 돌며 각 매장 공간에 맞게 모양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젝트다. 모듈화된 벽체, 조합에 따라 모양이 바뀌는 블록,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벤트에 따라 컬러가 바뀌는 LED 라이팅 등 7 시리즈의 특징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호응을 얻었다. "BMW 코리아와 서로 든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도 좋았던 것 같아요. 건축가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고집을 내세우기보다 소통을 절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력과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뉴 7 시리즈가 일관되게 추구하는 본질을 지키면서도 각 세대마다 시대의 요구를 반영해 진화하는 것처럼, 건축가에게도 유연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백준범 전무가 강조하는 '지속 가능한 디자인'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야 하기 때문. CO₂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냉방방비를 줄이는 등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거나 주변 가까이 있는 친환경 재료를 쓰고, 태양열이나 지하수, 바람 등의 자원을 에너지화하는 것, 건축 디자인 역시 20~30년 후에도 약간의 변화를 거쳐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도록 시대를 막론한 디자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 그는 여기에 건축가의 창의성을 더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미래 건축의 이상적 방향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전통과 현대, 현실과 미래의 비전, 사람과 환경의 간극을 영민하게 포착하고 유연하게 소통할 줄 아는 이 시대의 크리에이티브 리더. 백준범 전무가 BMW 뉴 7 시리즈와 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닐까. **글 이영주**



1 BMW 뉴 7 시리즈와 건축가 백준범. 2 건축가 백준범. 3 고급스럽고 인력한 느낌을 주는 뉴 7 시리즈 뒷좌석. 4 운전자 중심으로 디자인된 뉴 7 시리즈 운전석. 5 뒷좌석에서도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뉴 7 시리즈 터치 커맨드.



● sponsored by BMW KOREA

자본 계몽 BMW 코리아

Sublime radiance

피부에 빛과 젊음을 선사하는 샤넬 코스메틱의 하이엔드 안티에이징 라인인 '수블리마지'가 출시 10주년을 맞았다. 무려 10년간 꾸준히 사랑받으며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수블리마지의 핵심 성분과 뛰어난 효능이 입증되었다는 증거. 샤넬은 이에 힘입어 올 11월, 언제 어디서나 수블리마지의 효능을 느낄 수 있는 여행용 보야지 키트와 수블리마지의 귀한 성분을 담아 궁극의 광채를 선사하는 파운데이션, '수블리마지 르 땡'을 함께 선보인다. 자, 이제 샤넬 수블리마지와 함께 스킨케어부터 메이크업까지 피부 광채와 안티에이징 효과를 모두 만족시킬 뷰티 케어를 시작해보자.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샤넬 수블리마지 레썬스 30ml 51만원, 샤넬 수블리마지 라 크렘 50g 48만원.



샤넬 수블리마지 르 땡 30g 18만2천원.

젊음의 활기와 편안함을 되찾은 피부

샤넬 스킨케어 역사의 전환점이자 아름다움에 대한 이들의 가치관과 정수를 담은 라인인 단연 2006년에 처음 선보인 '수블리마지'다. 샤넬 코스메틱에서 선보이는 제품 중 가장 고가의 하이엔드 라인임에도 출시 때부터 지금까지 백화점 매장과 면세점에서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중·장년층의 충성도와 재구매율이 높은, 하이엔드 코스메틱 시장을 대표하는 베스트셀러 제품이다. 그만큼 텍스처, 향, 효과, 패키징 등 모든 면에서 만족스럽다는 후기와 더불어 하이엔드 코스메틱으로서의 럭셔리한 품격과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평이다. 이처럼 수블리마지가 특별한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보다도 샤넬만의 독자적인 핵심 성분 때문이다. 피부의 필수 기능을 복돋고 탁월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발휘하는 바닐라 플레니폴리아가 그것으로, 이는 샤넬을 대표하는 핵심 성분이자 수블리마지가 성공하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 첫선을 보인 2006년에 기록적인 성공을 이뤘음에도 샤넬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지난 10년간 바닐라 생애의 모든 단계에서 최상의 핵심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 꾸준한 연구로 성분을 업그레이드해왔다. 그 결과, 지난 1월 수블리마지 컬렉션의 진수라 할 수 있는 제품을 업그레이드해 선보였는데, 바닐라에서 추출한 에페메르 드 플레니폴리아의 놀라운 생명력을 담은 '수블리마지 라 크렘'이 그 주인공이다. 여기서 우리는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에페메르 드 플레니폴리아 성분에 주목해야 한다. 샤넬 연구소는 10년간 쌓아온 바닐라 플레니폴리아 성분에 대한 연구 노하우를 바탕으로 바닐라 플레니폴리아의 생명 주기 중 열매가 익기 바로 직전에 꼬투리가 성장하는 찰나를 포착했고, 이때 열매에서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갖춘 분자인 에페메르가 생산되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 에페메르 분자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굉장히 희귀하고 진귀한 성분. 이를 얻기 위해 샤넬은 꼬투리가 익기 바로 직전인 4월에 매일 아침 녹색 꼬투리를 신속하게 수확한 뒤, 독자적인 정밀 추출법을 통해 에페메르 분자를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이 고귀한 성분을 포함해 바닐라 열매, 꽃까지 모든 활성 성분을 조합한 플레니폴리아 PFA를 담은 수블리마지 라 크렘은 피부의 필수적인 생명 인자의 합성에 작용하고 활동성을 증대시켜 강력한 재생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모든 노화의 징후에 복합적으로 작용해 피부에 활력과 편안함을 부여하고 처진 얼굴 윤곽과 주름을 눈에 띄게 완화한다. 10년간의 노하우를 집약한 만큼 스킨케어를 하는 동안 감각적인 경험을 선사해줄 부드럽고 풍부한 텍스처 또한 이 제품의 장점 중 하나. 보다 산뜻하고 가벼운 제형의 라 크렘 텍스처 파인과 생크림처럼 부드러운 리치한 타입인 라 크렘 텍스처 수프림, 두 가지 제형으로 선보여 피부 타입 혹은 취향에 따

라 선택할 수 있다. 수블리마지 라 크렘과 함께 사용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디톡스 세럼인 '수블리마지 레썬스' 역시 수블리마지를 대표하는 아이코닉 제품이다. 피부 노화의 주요인인 피부 속 독소를 피부 스스로 제거하는 과정을 활성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세럼으로, 이는 피부가 더욱 고르고 윤기 있는 상태가 되도록 밀바탕을 튼튼하게 다짐으로써 수블리마지 라 크렘의 유효 성분이 피부에 더욱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룬다. 이런 수블리마지의 명성과 효과를 언제 어디서나 느낄 수 있도록 샤넬은 올 11월, 작은 여행 가방이나 핸드백에 손쉽게 휴대할 수 있는 트래블 키트인 '수블리마지 보야지'를 출시한다.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선사하는 바닐라 워터와 피부에 활력을 더하는 천연 활성 성분을 담은 스프레이 타입의 세럼인 수블리마지 라 브림과 리펠이 가능한 블랙 거울 케이스에 담긴 수블리마지 라 크렘으로 구성해 기내에서도, 여행지에서든 간편하게 사용 가능한 데다 수블리마지의 효과는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수블리마지의 광채를 고스란히 담은 파운데이션

샤넬에 있어 '빛이 없는 아름다움'이란 존재할 수 없다. 스킨케어를 넘어 이를 완성하는 메이크업 단계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광채를 더하기 위한 샤넬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2016년 샤넬의 야심작은 수블리마지의 뛰어난 안티에이징 효과와 광채를 고스란히 담은 파운데이션, '수블리마지 르 땡'이다. 수블리마지 라인에서 선보이는 메이크업 제품답게 놀라운 만큼 크리미하면서 촉촉해 마치 스킨케어 제품처럼 느껴진다. 수블리마지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성분인 농축 바닐라 워터와 자연스럽게 빛나는 광채 효과를 선사할 다이하이드로 파우더, 피부 결점을 보완해줄 소프트 포커스 복합체까지, 귀한 성분을 엄선해 담았다. 소량만 발라도 피부 톤이 고르고 화사해지는 것은 물론, 12시간 지속되는 보습력으로 시간이 지나도 건조해지지 않아 만족스럽다. 더불어 균일한 커버력과 광채 효과가 8시간 동안 지속되며 메이크업이 무너질 염려도 없다. 무엇보다도 함께 구성된 럭셔리한 파운데이션 브러시가 단연 으뜸인데, 사선 모양으로 커팅한 부드러운 브러시로 수블리마지 르 땡을 더욱 얇고 고르게 피부에 밀착시킨다. 브러시로 얼굴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퍼 바르면 브러시 자극 없이 피부 톤이 균일하게 정돈되고, 보다 완벽한 메이크업을 원할 경우에는 커버력을 높이고 싶은 부위에 부드럽게 덧발라주면 된다. 피부 톤을 고르고 화사하게 해줄 여섯 가지 컬러로 출시된 수블리마지 스킨케어 제품과 이 파운데이션으로 젊음의 광채와 생기를 되찾아보길. 문의 080-332-2700 에디션 리뉴얼



1 샤넬 수블리마지 보야지 라 크렘 텍스처 수프림 20g + 리펠용 1개, 라 브림 18ml + 리펠용 3개 67만2천원 2 수블리마지의 핵심 성분인 바닐라 플레니폴리아.

© sponsored by CHANEL



made in Umbria

이탈리아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고대 도시 로마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아름다운 구릉지를 품은 토스카나.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이 두 곳을 잇는 이탈리아의 중심부에 파비아나 필리피의 고향, 움브리아가 있다. 피렌체에서 차를 타고 약 2시간 30분 달려 움브리아 주로 진입하면 성 프란체스코의 고향 아시시를 지나, 그린빛 올리브 농장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작은 마을, 몬테팔코에 다다른다. 레드 와인의 명작으로 손꼽히는 몬테팔코 사그란티노의 본고장이자, 'Made in Italy'의 진정한 리더인 이탈리아 럭셔리 여성 브랜드 파비아나 필리피가 탄생한 곳이다.

아름다운 자연을 벗 삼은 핸드메이드 장인의 본고장, 움브리아 주 몬테팔코
질은 초록색으로 물든 올리브 나무가 끝없이 펼쳐진 농장을 배경으로 처음 마주한 움브리아 주의 몬테팔코(Montefalco)의 모습은 동화 속 전원 마을처럼 아주 작고 조용했으며 한적한 여유로움이 묻어났다. 이탈리아 어느 도시에도 있는 작은 광장에 자리한 카페테리아와 아지자지 한 상점 곳곳에는 관광객 대신 이 지역 오랜 토박이들의 여유로운 이탈리아인 특유의 유쾌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만큼 외부 관광객보다는 현지 주민들이 대부분이고, 이런 연유에서인지 가장 이탈리아스러운 풍경과 문화를 지니고 있다. 13세기 에 지은 시청과 현재는 뮤지엄으로 활용되며 움브리아 지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유저임으로 여겨지는 산 프란체스코 성당 등 수백 년 전 마을의 모습과 전통을 그대로 보존해 이탈리아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온 마을에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어 오후가 되면 마을 곳곳의 오랜 건물이 붉은색이 도는 황금빛으로 물드는 이 아름다운 마을은 오랜 역사와 뛰어난 자연환경만큼이나 움브리아에서 손꼽히는 핸드메이드 장인들의 본고장으로도 유명하다. 그 때문에 몬테팔코 마을의 작은 골목마다 자리 잡은 가족, 화살촉 등 나이가 지긋한 장인이 운영하는 공방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처럼 '이탈리아 하면 뽀빠'를 수 없는 장인 정신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탈리아 소도시에서 꽃을 피우고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이탈리아 장인 정신을 아슬히 엿볼 수 있는 움브리아의 몬테팔코에서 차로 10분 이동하면 진정한 'Made in Italy'의 가치를 실현하는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파비아나 필리피(Fabiana Filippi)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진정한 메이더 인 이탈리아의 진수, 파비아나 필리피
움브리아에서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한 파비아나 필리피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같은 곳에서 쓰이고 있다. 파비아나 필리피는 어린 딸의 이름을 딴 브랜드 이름으로(같은 현재 상인으로 성장해 디자인에서 일하고 있다), 마리오 필리피와 지코모 필리피 형제가 운영하는 패밀리 기업이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면서 주요 상업 지구인 도심으로 타진을 이동할 수도 있을텐데, 이 두 형제는 핸드메이드 전통의 탄생지인 'Made in Umbria'라는 이탈리아 장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자신들이 태어난 고향이자 브랜드의 역사가 시작된 이곳에서 지역의 전통적인 방식과 현대 기술을 접목해 브랜드를 발전시켜왔다. 파비아나 필리피 본사에서 만난 CEO 마리오 필리피는 "파비아나 필리피의 제품과 제작 과정의 원천은 '이탈리아스러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제품은 품질과 스타일 사이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움브리아 최고 장인들의 손에서 완성되는 것이 특징이죠. 오늘날 파비아나 필리피는 움브리아에서 탄생한 1백 년 간의 핸드메이드 전통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라고 브랜드에서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설명한다. 럭셔리한 감성을 기본으로 성세하면서도 편안하고 우아한 여성미를 강조하는 룩을 선보이는 하이엔드 여성 의류 브랜드, 파비아나 필리피의 강점이자 브랜드의 가치를 보여주는 대표 아이템은 단연 니트웨어다. 진정한 이탈리아 니트웨어를 선보이기 위해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한 브랜드 히스토리에선 엿볼 수 있듯이 매 시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듯한 새롭고 아름다운 컬러, 편안하고 우아한 실루엣과 부드러운 착용감을 선사해줄 최상의 니트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투박한 연구를 아끼지 않는다. 세계 1위로 손꼽히는 최고급 원단인 어떤 원사와 소재를 어떤 방식으로 조합할 것인지를 연구해 파비아나 필리피만의 소재를 독점 개발하는 것이 특징인데, 그 결과 생산하는 니트웨어의 70%에 파비아나 필리피만의 원단을 사용한다. 이러한 소재



Sponsored by FABIANA FILIPPI



1 수백 년 전 간직된 마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몬테팔코. 이곳에서 파비아나 필리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2 파비아나 필리피 본사에 있는 스톨. 2017 S/S 컬렉션의 신제품들이 디스플레이되어 있다. 3 움브리아 주에 위치한 파비아나 필리피 본사 외관. 4, 13 우아하고 편안한 실루엣이 돋보이는 파비아나 필리피 2017 S/S 컬렉션을 착용한 모델들. 5 지난 9월, 이탈리아 밀라노 패션 위크 기간 동안 개최된 파비아나 필리피 2017 S/S 컬렉션 프레젠테이션 현장. 6 파비아나 필리피의 CEO 마리오 필리피. 7, 8 2017 S/S 컬렉션 디자인 스케치. 9 기확한 제품의 디테일한 시황을 기록한 기획 노트. 샘플 기획부터 디자인, 소재 개발, 생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이루어진 하우스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10 본사에 상주하는 니트웨어 장인이 샘플로 나온 니트를 직접 손으로 수정하고 있다. 11 촉박받은 자연환경에 둘러싸인 몬테팔코는 탐스롭고 맛있는 올리브 생산지로 유명하다. 12 파비아나 필리피는 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몬테팔코가 고향인 이탈리아 초기 르네상스의 패턴재미 화가 베노초 고졸리의 전시 세팅과 설치물 후원하면서 그의 주요 작품을 몬테팔코로 돌아오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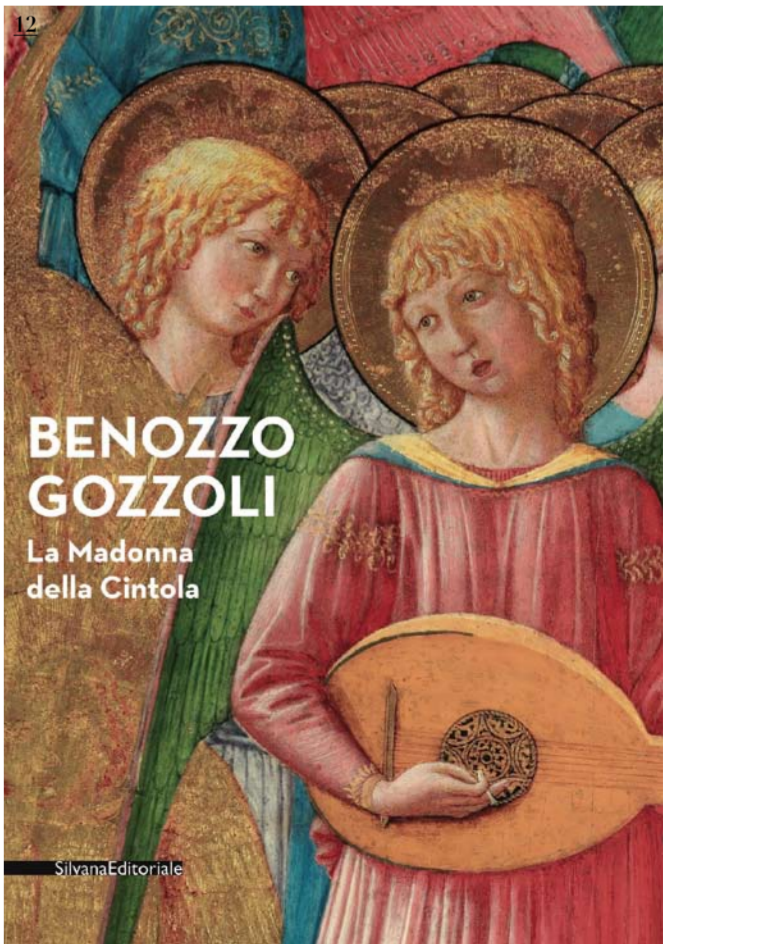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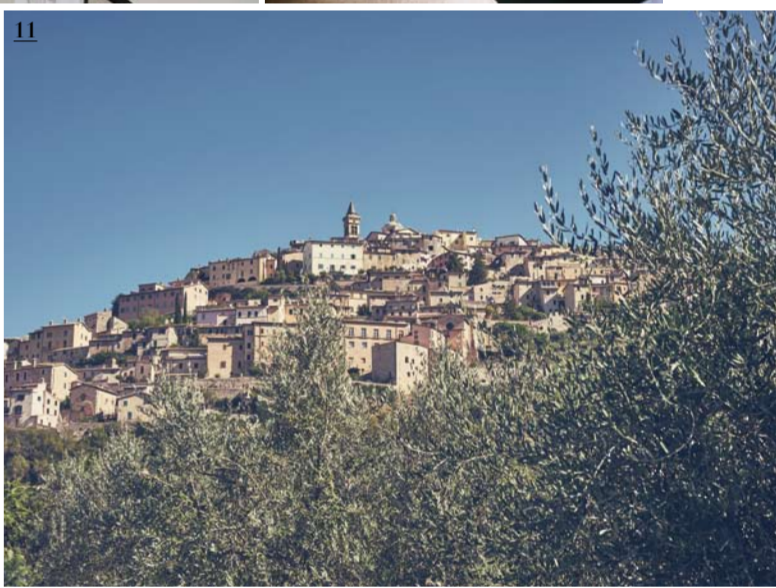
개발부터 생산, 직조 등 생산 과정이 모두 본사에 있는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아주 독특하게도 제품 기획부터 디자인, 패턴 작업, 제품 생산, 물류, 유통, 고객 서비스에 이르는 모든 프로세스가 이곳 본사에서 이루어진다. "패션 회사에서 디자인, 원자재, 제조, 유통 같은 모든 생산 단계가 이루어지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모든 단계를 한 회사 구조 안에서 해결하면 제품의 품질을 심장으로 체크할 수 있으며 각 부서 간의 간섭적인 상호 소통과 기획 사항 보호, 창조적인 디자인 창출, 높은 퀄리티 유지, 그리고 비용의 효율성까지 다양한 장점이 존재"라는 마리오 필리피의 설명처럼, 파비아나 필리피가 가진 가장 큰 힘은 바로 심장으로 이뤄지는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만큼 부서역시 즉각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된 점이 인상적이다. 디자인실 옆에는 패턴 작업실이, 그리고 그 옆에는 패턴의 모양, 사이즈, 니트의 짜임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장인의 작업실이 자리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상의가 이루어지고 즉각적으로 수정이 가능하다. 또 생산뿐만 아니라 기획, 리서치, 유통까지 한곳에서 이루어지니 외부에 하청을 주는 일반 패션 회사와는 달리 진정한 'Made in Italy', 'Made in Umbria'를 추구할 수 있다. 이는 1980년대 후반부터 지속해온 시스템으로, 현대 기술이 패션을 정형하고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패스트 문화가 세계 트렌드를 주도할 때에도 이에 흔들리지 않고 전통에 기초한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켜가는 파비아나 필리피의 굳은 철학과 고집이다. 이것이 파비아나 필리피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함없이 하이엔드 티의 제품을 선보일 수 있었던 성공의 비결이자, 오래도록 사랑받을 수 있는 브랜드의 원동력이다.

아름다운 자연의 컬러와 실용성을 더한 2017 S/S 컬렉션

이탈리아의 촉박받은 고향, 움브리아의 따스한 햇살과 아름다운 자연의 컬러를 연상시킴, 지난 9월 밀라노 컬렉션에서 선보인 2017 S/S 파비아나 필리피 컬렉션은 해안 풍경을 따라 로맨틱한 산책을 하며 봄을 만끽하는 우드의 싱그러움 컬러로 구성되었다. 보가만 해도 산뜻한 레몬 옐로, 머린 블루, 스트로베리 레드, 피치버터 보르도, 그레이, 스톨 컬러 계열의 내추럴 톤을 바탕으로 과장되지 않고 우아한 스타일이 주를 이룬다. 파비아나 필리피의 장기간 캐주얼 니트웨어를 기본으로 몸을 타고 부드럽게 흐르는 먼, 실크, 울, 포플린 등으로 만든 블라우스, 와이드 팬츠, 재킷과 함께 아주 가볍고 따뜻한 울트 라이트 다운 패딩, 해변의 그늘 매트를 연상시키는 텍스처의 트루드 코트와 조끼, 이번 시즌 트렌드인 체크 모티브 모에어 베스트와 조끼 팬츠, 보이드 팬츠 등 다양한 소재를 접목한 다채로운 아이템으로 채웠다. 실루엣은 부드럽게 흐르는 플루이드 느낌과 오버사이즈로 디자인한 직선 라인인 대조를 이루어 컬렉션을 더욱 풍부하게 했다. 편안한 착용감과 실용성은 물론이고 데일리 룩과 오피스 룩 등 어떠한 T.P.O.에나 모두 자연스럽게 매치될 수 있도록 디자인했으며, 최상급 소재로 럭셔리와 세련미를 표현한 블랙 라벨과 우아하고 세련되었지만 보다 캐주얼하고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화이트 라벨, 두 가지로 선보인다. 마리오 필리피는 이번 컬렉션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우리의 컬렉션이 누군가에게 웃으며 꿈을 꾸게 해주길 바라는 진솔한 마음으로 디자인합니다. 또 웃이 사념보다 튀거나 도드라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로고로 웃을 자랑하거나 시그니처 액세서리를 선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 웃음 통해 여성이 돋보이고 그녀의 인생이 빛나길 바랍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다

이탈리아 현지에서 느낀 파비아나 필리피의 열정과 철학은 실로 남달랐다. 움브리아 지역의 장인들에 대한 경외심과 촉박받은 아름다운 환경에 대한 감사를 바탕으로 이와 함께 어우러져 발전하는 긍정적인 자재가 비즈니스의 성공 요소가 된 것이다. 파비아나 필리피는 이러한 철학과 가치를 존중하며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매년 움브리아 지역의 자연을 생각하는 서포터 활동과 음악, 예술, 문화 등이 아우러진 세계적으로 명성 높은 페스티벌 '2 월드 페스티벌(Worlds Festival)'에 서포터로 참여하는 등 사회 공헌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또 이탈리아 초기 르네상스의 패턴재미 화가 베노초 고졸리의 전시 세팅과 설치를 후원하면서 결과적으로 그의 걸작품이 고향인 몬테팔코로 돌아오게 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파비아나 필리피의 수장인 필리피 형제는 이탈리아의 중심인 움브리아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브랜드를 일구어 이곳을 떠나지 않고 현재까지 무한한 애정을 쏟고 있다. 이는 이 작은 마을이 보유한 이탈리아 장인 정신과 역사에 대한 헌신의 뜻일 것이다. 이곳에 대해 사람들에게 세심하게 설명하는 그들의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 아름다운 이탈리아 움브리아에서 몬테팔코와 파비아나 필리피가 공존하며 성장하고 있는 만큼, 좋은 소재만으로 핸드메이드 공법을 활용해 전통을 기본으로 웃을 만드는 이들의 진심이 소비자들에게도 온전히 전달되기를 바란다. 문의 02-6905-3625 에디터 권유진@이탈리아한지취재



BENOZZO GOZZOLI
La Madonna della Cintola
SilvanaEditoriale

(왼쪽부터) 한쪽 옆면에 알고 굵은 화이트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포인트를 준 호보 스타일의 지브라백, 38X31cm, 5백만원대 **엘보**, 하우스의 독자적인 세브로 패턴에 골드 브라스 GG 글로저로 장식한 GG 마운트 라지 토트백, 35X26cm, 2백86만원 **구피**, 가방 일면에 토즈 특유의 고마노 페블을 적용한 웨이브 소핑백, 31X33cm, 2백만원대 **토즈**.



Big match

휴대폰과 립스틱 하나 겨우 들어가는 프리 백은 잠시 옷장에 넣어두자. 당신의 스타일에 무게를 실어줄 빅 사이즈 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으니,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추억의 게임, 스페이스 인베이션스 게임의 맥앤을 형상화한 캐리커를 픽셀화해 위트를 더했다. 스트랩을 탈착할 수 있는 캐주얼한 디자인의 토트백 34X35cm 2백19만원, 픽셀 백 참 37만원 모두 **인야 힙드미치 by 분더샬**, 로열 블루 색상의 빅 사이즈 파카부 백 40X28cm 7백만원대, 칼리토 백 참 1백39만원, 포인트 액세서리로도 제작인 스트랩 유 1백18만원 모두 **헨디 by 분더샬**, 브랜드 시그니처 카나주 패턴과 가방 플랩 부분의 곤충 모티프 크리스탈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엘로 컬러 양가죽 소재 스타터스 토트백, 24.5X31cm, 4백만원대 **디올**, 에디터 **이지연**

분더샬 02-2056-1234 디올 02-513-0300 엘보 02-3449-5916
구피 1577-1921 토즈 02-3438-6008



스타일리스트 이지연, 장 아사시엔 OMEGA, 김수민, 태영, 김민호, 김민호 OMEGA (070-4656-0175)

her Time

베이징의 밤이 빛났다. 지난 9월 세계적인 여배우이자 오메가의 오랜 친구인 니콜 키드먼이 오메가의 새로운 여성 워치, 뉴 컨스텔레이션 스몰 세컨즈의 론칭을 기념해 아시아의 핵심 도시인 베이징을 찾은 것. 오메가의 빈티지 타임피스 컬렉션 전시회까지 이어진 특별한 여성 워치 이야기.



우아하고 독립적인 여성을 위한 보렘 컬렉션
스위스 워치의 중심축, 스위치 그룹에서도 핵심 브랜드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오메가. 오메가가 오랫동안 시간과 노력을 들인 분야는 바로 여성 워치다. 세계적으로 이름을 널리 알린 남성 워치에 대한 비전을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여성들도 기계식 워치의 가치와 스위스 시계의 특별한 명성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도록 레이디메터 같은 특별한 컬렉션을 꾸준히 선보여왔다. 지난 9월 28일, 베이징에서는 이러한 행보에 더해 오메가의 오랜 유산인 여성용 워치메이킹의 역사를 기리기 위해 성대한 기념 파티를 개최했다. 우아함과 정확성을 고스란히 담은 오메가 여성용 워치의 엠베서더인 오스카상 수상에 빛나는 할리우드 여배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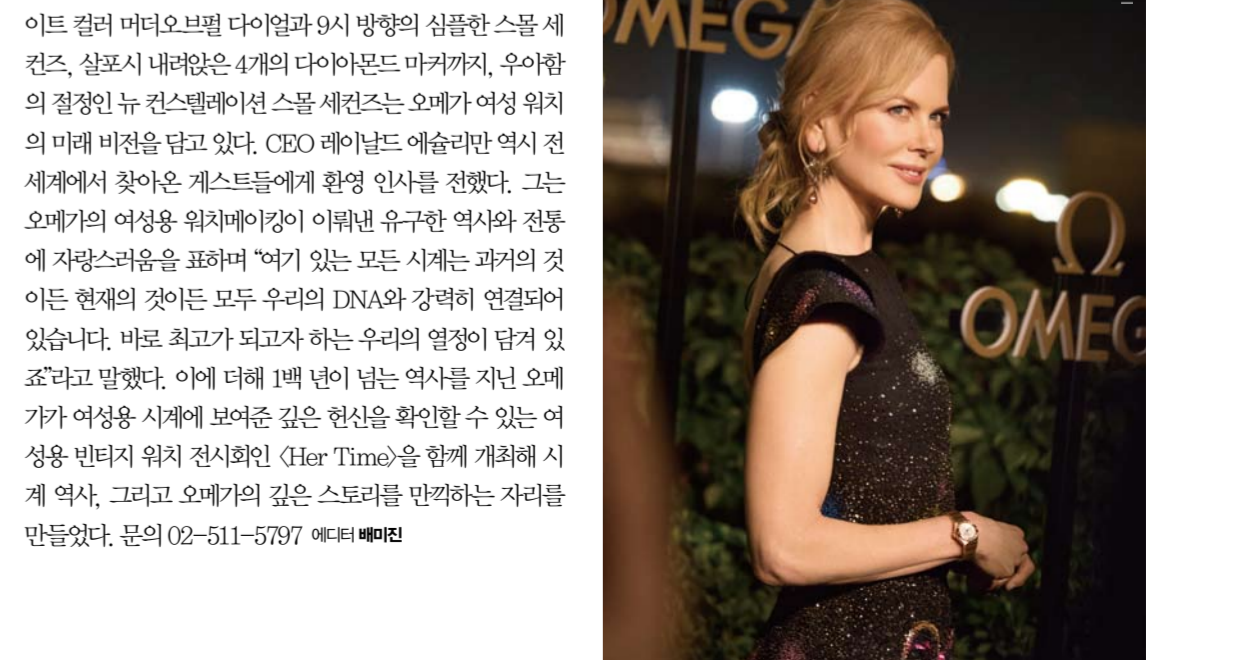
니콜 키드먼은 베이징을 찾아 이번 행사의 또 다른 주인공인 뉴 컨스텔레이션 스몰 세컨즈를 소개하며 그 의미를 널리 알렸다. 베이징에서 첫선을 보인 뉴 컨스텔레이션 스몰 세컨즈가 특별한 것은 여성용 시계로는 최초로 스위스 계측학 연방학회(METAS)와 오메가가 협업해 개발한 새로운 마스터 크로노미터(Master Chronometer) 인증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겨울, 스위스 계측학연방학회와 오메가가 함께 발표한 인증 시스템인 마스터 크로노미터는 1만5천 가우스의 강한 자기장에 노출되었을 때도 기능이 유지되는 여덟 가지 표준 측정 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인증 시스템이다. 시계업계에 새로운 품질 기준이 되어줄 이 시스템은 혁신적으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사실 이러한 인증 시스템을 통과한 정교한 무브먼트를 장착한 여성용 워치를 선보이는 브랜드는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성별을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그 자체의 완성도가 높은 워치가 필요하다는 오메가의 철학은 스위스 시계 산업을 대변한다.

우아하고도 정확한 뉴 컨스텔레이션 스몰 세컨즈

니콜 키드먼은 베이징 오리엔탈 플라자에 위치한 오메가 부티크도 방문했는데, 이곳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플래그십 스토어이자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매장으로, 오메가 시계의 발전에 중요한 장소다. 이번 베이징 이벤트의 얼굴이 되어준 니콜 키드먼은 오메가의 대표이자 CEO 레이날드 에슐리만(Raynald Aeschlimann)을 만나 최신 여성용 타임피스이자 여성용 시계로서는 최초로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컨스텔레이션 스몰 세컨즈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듣고 착용해보며 "오메가의 오랜 친구로서 브랜드의 일부가 되어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며, 이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콜 키드먼의 이야기했다. 부드러운 화



1 중국 베이징에서 론칭 기념 행사를 가진 오메가 뉴 컨스텔레이션 마스터 크로노미터 스몰 세컨즈 워치. 2 오메가 베이징 부티크를 방문한 오메가 대표이자 CEO 레이날드 에슐리만과 니콜 키드먼. 3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오메가 플래그십 스토어가 위치한 베이징에서 개최된 이벤트. 4 이번 이벤트를 위해 베이징을 찾은 오메가 엠베서더 니콜 키드먼. 5 오메가를 대표하는 기계식 여성 워치 레이디메터. 6 METAS 인증을 받은 뉴 컨스텔레이션 마스터 크로노미터 스몰 세컨즈의 무브먼트 8704_A4.



이트 컬러 머티오브렐 다이얼과 9시 방향의 심플한 스몰 세컨즈, 살포시 내려앉은 4개의 다이아몬드 마저까지, 우아함의 절정인 뉴 컨스텔레이션 스몰 세컨즈는 오메가 여성 워치의 미래 비전을 담고 있다. CEO 레이날드 에슐리만 역시 전 세계에서 찾아온 게스트들에게 환영 인사를 전했다. 그는 오메가의 여성용 워치메이킹이 이뤄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자랑스러움을 표하며 "여기 있는 모든 시계는 과거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모두 우리의 DNA와 강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최고가 되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이 담겨 있죠"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1백 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오메가가 여성용 시계에 보여준 깊은 헌신을 확인할 수 있는 여성용 빈티지 워치 전시회인 <Her Time>을 함께 개최해 시계 역사, 그리고 오메가의 깊은 스토리를 만끽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문의 02-511-5797 에디터 배미진

Shine your light

공간에 아늑한 느낌을 더해줄 촛불,
그리고 그 빛을 담은 캔들 홀더는 파티 분위기를 고조시킬 특별한 크리스털 리빙 아이템.
존재 자체만으로도 근사한 오브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반짝임을 담은 스와로브스키의 새로운 티라이트 컬렉션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테이블 맨 위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화려한 트리 대신 별과 눈 결정체 등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모티브를 담은 37개의 종으로 구성된 크리스털 벨 오너먼트 세트 모두 24만5천원, 스와로브스키만의 크리스털 룩 기법으로 세팅한 슈머 티라이트, 화이트, 블랙, 레드, 옐로 각각 6만5천원, 정교하게 다듬은 크리스털 발찌이 포인트인 핑크와 옐로 얼룩이 티라이트 각각 11만2천원, 손잡이 부분에 클리어 크리스털 치톤을 세팅한 트리탈린 토스팅 플루즈 삼배인 잔 48만7천원(세트), 크리스탈린 레드 와인 잔 48만7천원(세트) 모두 스와로브스키, 문의 02-6930-9831
에디터 배미진, 이재민

© sponsored by SWAROVSKI



a munificent patron of Art

사명감을 갖는다는 것은 멋진 일이다. 문화와 예술, 필기 문화의 지속까지, 몽블랑이 거처온 세월은 탁월함을 추구하는 길고 긴 여정이다. 올해 제정 25주년을 맞은 몽블랑 문화 예술 후원자상 시상식은 몽블랑의 집념을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자리였다.



© sponsored by MONTBLANC

Montblanc de la Culture Arts Patronage Award 25th Anniversary



1 제25회 몽블랑 문화 예술 후원자상 시상식 행사장. 2 행사장에서 만날 수 있는 올해 문화 예술 후원자 에디션 페기 구겐하임 리미티드 에디션. 3 왼쪽부터 몽블랑 코리아 지사장 에릭 에더, 몽블랑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샘 바더필, 수상자 송은문화재단 이사장 유상덕, 몽블랑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팀 펠라스. 4 몽블랑 팬의 영감이 된 페기 구겐하임(Peggy Guggenheim). 5, 6 몽블랑 문화 예술 후원자 에디션 페기 구겐하임 에디션. 베니스에서 보낸 마지막 날들에 영감을 얻은 이브레코 스타일의 상배인 컬러 81 에디션, 블랙 컬러는 4810 에디션이다.



제25회 몽블랑 문화 예술 후원자상 시상식 개최

인류의 근원이자 지성의 상징인 펜, 인류 문명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필기 문화에 뿌리를 둔 몽블랑은 브랜드 창립 이래 꾸준히 예술과 문화를 후원하고 지지해왔다. 몽블랑이 문화 예술 후원 활동을 이어온 명사들에게 시상하는 행사인 '몽블랑 문화 예술 후원자상(Montblanc de la Culture Arts Patronage Award)'을 매년 개최한다는 것은 매우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이 행사가 올해 제정 25주년을 맞았다. 이 후원자상이 더 의미 깊은 것은 국내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명사의 예술 지원 활동을 지지하고, 세계 곳곳에서 문화 후원자상 수상자를 발굴해 왔기 때문이다. 몽블랑 문화예술재단은 개인의 헌신적인 노력이 문화 예술의 근간이라는 믿음으로 1992년부터 현대의 예술 후원자가 주인공이 되는 자리를 기꺼이 마련해 주었다. 올해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른 국내 수상자는 송은문화재단 유상덕 이사장이다. 1989년 시작된 송은문화재단에 1999년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2001년 '송은미술대상을 제정해 국내 예술가들에게 시상하고 후원해왔다. 2002년부터는 전시장이 필요한 국내 예술가들에게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 도록 제작을 도왔을 뿐 아니라 신진 작가들의 전시 활동까지 지원하는 뜻깊은 행보를 보였다. 2010년에는 현대 미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독립된 전시 문화 공간인 송은아트스페이스를 청담동에 개관하며 현대미술의 발전에 이바지했다. 유상덕 이사장은 이 상금을 델피나 재단(Delfina Foundation)에 전달해 한국 예술가를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이다. 이번 시상식에는 에릭 에더 몽블랑 코리아 지사장과 샘 바더필, 팀 펠라스 몽블랑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참석해 수상자인 유상덕 송은문화재단 이사장에게 문화 예술 후원금으로 사용할 1만5천원 규모의 상금과 수상자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몽블랑 문화 예술 후원자상 펜(Patron of Art Edition)'을 수여했다.

현대 예술의 수호자를 위해, 페기 구겐하임 에디션

몽블랑이 수상자에게 전달하는 문화 예술 후원자 펜 리미티드 에디션 4810은 올해 더욱 특별해졌다. 후원자상 제정 25주년을 기념해 특별히 제작된 트로피 인쪽에 펜을 담았고, 리미티드 에디션의 현대적인 디자인을 반영하는 한 쌍의 기하학적인 날개와 몽블랑 문화재단의 실(seal)을 새긴 디스크를 더했다. 16개국의 예술 후원자들에게 이 펜을 전달했는데, 이미 영국의 찰스 황태자, 영국의 마에스트로 사이먼 래틀, 이탈리아 건축가 렌초 피아노, 일본 아티스트 오노 요코 등 과거 몽블랑 후원자상에 이름을 올린 특별한 명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 더 의미 깊다. 예술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로 이루어진 국제 심사위원들이 후보자 중 수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이 모여 열정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기에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이야기가 담긴다. 또 이번 행사장에서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미술품 컬렉터이자 전시자인 페기 구겐하임에게 영감을 얻어 제작한 '페기 구겐하임 리미티드 에디션' 4810 에디션, 888 에디션, 81 에디션, 총 3종이 행사장에 공개되어 이목을 사로잡았다. 그 옆에는 JP 모건, 헨리 테이트, 프랑수아 1세, 막스 폰 오펜하임, 가이우스 킬니우스 마이케나스, 요제프 2세, 루도비코 스포르차, 헨리 E. 스타인웨이, 루치아노 파바로티 등을 기리며 출시된 18개의 지난 몽블랑 문화 예술 후원자 에디션 펜을 전시해 브랜드는 물론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숨결까지 느낄 수 있어 문화 후원에 대한 몽블랑의 헌신적인 노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www.montblanc.com
문의 1670-4810
에디터 배미진



(왼쪽 중앙부터 시계 방향으로) 비오템 옴므 포스 수퍼림 세럼 지금까지 선했던 남성 에센스의 모든 기능을 한 병에 담은 토털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세럼. 이 세럼 하나만으로 주름 개선, 탄력 증진, 매끄러운 피부결, 생기있는 피부 톤, 피부 활력 부여, 피부 장벽 강화, 열장 공급, 보습 효과까지 모두 얻을 수 있으니 아보다 더 쉽고 간편한 제품이 없다. 토털 기능을 뒷받침해주는 성분 역시 탄탄데다, 자체 재생 능력이 강력한 미국 오레곤 코르미스 호수에서 추출한 블루 알가 추출물과 생나무 추출물, 프로시린, 아레노신을 풍부하게 함유해 피부의 탄력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준다. 또 활성 산소 포획제로 선했던이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자극받은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킨다. 50ml 10만5천원대, 문의 080-022-3332

다음 옴므 더모 시스템 에이지 컨트롤 피관 케어 30대 이후부터 여자에 비해 빠르게 노화되고 주름이 쉽게 생기는 남성 피부를 위해 고안된 탄력 집중 케어 세럼. 특히 탄력을 잃어 두루뭇살해진 탄성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다. 피부 표면 작용을 강화하는 배티에티손과 인산 비타민 E, 리텐올을 복합해 적용으로 피부에 탄력도 유연성이 증가해 얼굴선이 한결 또렷해진다. 보습력이 뛰어난 자민 피지 분자를 조절하는 배티 이온 성분을 함유해 피부 속은 촉촉하면서 피부 표면은 변질감 없이 보습함을 유지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50ml 9만5천원, 문의 02-3438-9537

클라린스 라인 컨트롤 밤 제품에는 변화가 없는데도 서초의 목 사이즈가 달라졌다. 만? 이는 30~40대 남성이라면 공감할 경험으로, 나이가 들면서 목젓이 있는 선골의 위치로 인해 턱과 목에 지방이 점점 축적되고 탄력을 잃기 때문이다. 이에 착안해 클라린스는 카바인 성분을 풍부하게 담아 턱과 목의 늘어지는 실을 잡아주는 밤 타입의 리프팅 & 피인 제품을 선보인다. 부드럽고 편안한 밤 타입으로 시아버타, 바이스 그라스, EOP 성분을 더해 이 제품 하나만으로도 보습, 탄력 효과까지 모두 볼 수 있다. 더불어 아다스카르 성에서 전통 약재로 사용하는 파라크레스 추출물이 주름을 개선하고 피부 탄력을 증진시킨다. 50ml 6만4천원, 문의 080-542-9052

메리케이 MK엔 어드밴스드 아이 크림 남성을 위한 안티에이징 케어에 남성 전용 아이 크림이 빠질 수 없다. 남들에 비해 여러 보는 동안을 유지하려면 눈가 탄력 케어에 집중할 것. 수분감이 풍부한 오일 프리 타입인 이 아이 크림은 끈적임 없이 피부에 선풍하고 부드럽게 흡수되어 아침저녁으로 사용해도 부담스럽지 않다. 주름 개선과 눈가 피부의 탄력을 높이는 아레노신,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보습력을 형성하는 시아버타와 배티인, 피부결 더욱 부드럽고 매끈하게 관리해줄 펩타이드 성분을 함유했으며, 꾸준히 사용하면 눈가가 한결 유연해지고 디오시테인을 이용해 인색 지체를 탈염시키는 효과가 있다. 18g 3만8천원, 문의 02-540-7770

랩 시리즈 맥스 LS 매트 리뉴얼 로션 피지 분리가 많은 지성 피부를 위한 보습 로션. 일명 '속결성 현상'이라 불리는 피부 속 건조함을 완화하고 피부 표면의 과도한 유분을 조절해 가장 이상적인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해준다. 촉촉하고 부드러운 밀키 타입의 텍스처가 피부에 가볍고 싹스하게 흡수되는 것이 특징이고, 알루메이트 테크놀로지를 적용해 변질감 없이 즉각적으로 환한 피부로 바꿔준다. 50ml 8만1천원, 문의 02-3440-2774

특사팀 세트라 클로벌 페이스 쉐일 피부 진정, 보습, 탄력 등에 효과를 발휘하는 올인원 케어 페이스 쉐일. 간편한 스스케어를 원하는 남성에게 추천하는 제품으로 유가농 세트라 추출물을 함유해 피부에 활력도 생기를 더한다. 수분이 느껴질 정도로 촉촉하고 끈적임이 없는 쉐일 타입이라 여러 번 덧발라도 부담이 없으며 촉촉하게 흡수되면서 과도한 피부를 조절해 보습보습한 마무리감을 선사한다. 50ml 4만2천원, 문의 02-3014-2950

카멜 에이지 디펜드 모이스처라이저 깊고 굵은 주름이 쉽게 생기는 남성 피부 특유의 노화 현상에 적극 대응하는 안티에이징 크림. 오메가 3 지방산, 비타민, 단백질 등을 풍부하게 함유한 아미노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사용해 피부 깊숙이 영양을 공급하고 피부를 더욱 탄탄하고 유연하게 바꿔준다. 또 카모밀로인 살리실산 성분이 피부 표면의 각질을 제거해 유해 성분이 보다 효과적으로 피부 속에 침투되도록 돕는다. 보습력이 풍부한 생크림이 부르는 텍스처가 특징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지 않는다. 50ml 5만9천원대, 문의 080-022-3332 에디터 권유진



aging Defend

나뭇잎이 붉게 물든 어느덧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온다. 남자의 피부에도 안티에이징과 보습이 필요한 순간이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moisture Power

럭셔리 스킨케어의 강자, 데코르테에서 선보인 '리포솜 트리트먼트 리퀴드'가 론칭 1주년을 맞았다. 브랜드의 정수를 보여주는 리포솜 캡슐이 담긴 두 번째 에센스로, 환하고 탄력 넘치는 피부로 가꿔주는 '리포솜 트리트먼트 에센스'의 파워를 다시금 느껴보자.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데코르테의 정수, 리포솜 캡슐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오래도록 마나음을 형성한 뷰티 브랜드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름테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브랜드만의 독자적인 성분과 기술력을 보유하는 등 아티 뷰티 브랜드와는 차별화된 제품력을 갖춰야 한다. 데코르테가 하이엔드 스킨케어 브랜드 중에서 목표적인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 또한 바로 데코르테만의 기술력이라 지부할 수 있는 '리포솜 캡슐' 덕분이었다. 데코르테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유해 성분만큼, 그 성분을 필요한 곳까지 안전하게 전달하는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탄생시킨 것이 바로 리포솜 캡슐이다. 데코르테의 연구진이 약 8년간의 연구를 통해 선보인 이 캡슐은 한 겹의 캡슐이 아닌 여러 겹이 겹친 형태의 다중층 리포솜으로, 캡슐 막이 한 겹씩 녹을 때마다 그 안에 담긴 유효 성분이 방출되어 제품의 지속력과 흡수력을 높인다. 그 결과 리포솜 캡슐이 건조한 부위에 스스로 찾아가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 피부 컨디션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된 것. 리포솜 캡슐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브랜드의 정수가 되어 데코르테 스킨케어 라인에 친화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리하여 1992년, 첫 번째 리포솜 캡슐을 적용한 '모이스처 리포솜'이 탄생하게 된다. 이 제품은 보라색 에센스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리뉴얼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브랜드의 베스트셀러로 사랑받고 있다. 그리고 작년 9월 모이스처 리포솜의 명성을 이을 또 하나의 리포솜을 선보였다. 바로 더욱 강력해진 수분 지속력과 빠른 흡수력을 자랑하는 리포솜 트리트먼트 리퀴드가 주안공. 브랜드의 독자적인 리포솜 기술이 담긴 두 번째 제품으로, 높은 수분 지속력과 빠른 흡수력으로 건강한 피부를 선사하는 트리트먼트 에센스다. 이제 막 론칭 1주년을 맞은 리포솜 트리트먼트 에센스는 브랜드의 베스트셀러인 모이스처 리포솜의 인기를 단숨에 따라잡으며 그에 버금가는 시그니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고, 이를 기념해 스페셜 에디션 출시했다. 기존 170ml 용량보다 작은 100ml의 휴대용 사이즈를 출시한 것이다.

리포솜 파워를 느끼게 해줄 다양한 레시피 부쩍 차가워진 바람에 피부는 점점 생기를 잃고 푸석해지며, 각질이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자진 피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인 것. 수분 집중 관리가 필요한 때인 만큼 화장품을 고를 때는 신중해야 한다. 이용하면 이 모든 피부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줄 똑똑한 올인원 제품을 고르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안이다. 바로 데코르테의 리포솜 트리트먼트 리퀴드처럼. 수분을 가득 머금은 워터리안 텍스처로 토너 제형에 가까운 이 에센스 한 병에는 피부에 닿는 순간 즉각적으로 수분을 전달하는 리포솜 캡슐이 담겨 있다. 리포솜 캡슐 안에 비피나무 일 추출물과 부처브루 뿌리 추출물을 함유한 복합체, PMZ(Potential Maximizer) 성분을 넣어, 빨려 들어갈 듯한 투명감과 넘치는 탄력감, 한층 건강해진 피부를 실현시켜준다. 한디로 피부 자체의 컨디션을 끌어올려 해나만 사용해도 충분히 이롭고 피부로 거듭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아침저녁으로 기초 스킨케어 루틴에서 에센스 단계에 비르는 것. 화장실 뒷안까지 제품을 충분히 적셔 피부에 스며들도록 지그시 눌러주면, 푸석하고 건조한 피부를 개선하고 들뜨 각질을 말끔히 정리해주며, 피부 본연의 환한 빛을 되살려줄 것이다. 피부 고민이 복합적이면 리포솜 트리트먼트 리퀴드를 바른 후 다른 에센스를 추가해도 좋다. 다음 단계 제품의 유효 성분이 쉽게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부스터 역할도 하기 때문. 피부에 건조함을 자주 느끼거나, 메이크업 수정을 자주 하는 이들에게 작은 광경에 리포솜 트리트먼트 리퀴드를 얹어, 에센스 미스트로 사용하는 방법도 추천한다. 뿌리엔 뿌리만큼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드는 여는 수분 미스트와는 달리, 이 제품은 건조한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아낌없이 전달해줄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에센스를 화장실에 충분히 적신 후 얼굴에 얹어놓으면 피부에 신속하게 생기 에너지를 부여하는 수분 백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자치고 활력을 잃은 피부가 고민이라면 지금 당장 데코르테 리포솜 트리트먼트 리퀴드로 매일 달라진 피부를 눈으로 확인해보길. 170ml 12만5천원대, 문의 080-568-3111 에디터 백미진, 이지연

● sponsored by DECORTÉ

editor's Pick

〈스타일 조선티블〉가 선정한, 여성스럽고 관능적인 매력을 선사해줄 과감한 컬러 아이템과 감각적인 향을 담은 뷰티 아이템.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다음 픽스 잇 컬러 리스틱처럼 생긴 이 제품은 장치는 칙칙한 톤, 다크 스모크, 붉은 기 등 피부 결점을 커버하는 멀티 코렉터다. 스틱 중앙의 투명한 텍스처에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소프트 포커스 파우더가 함유되어 있어 피부결과 톤을 균일하게 보정해 본격적인 메이크업 준비 단계에 도움을 주고, 이를 감싸고 있는 틴티드 컬러 코렉터는 불규칙한 피부 톤과 피부 결점을 즉각적으로 커버한다. 피부 톤에 따라 그린, 옐로, 블루, 아브라코트 컬러로 선택하면 된다. 3.5g 4만7천원, 문의 080-342-9500. *by 에디터 권유진*

글레드보 보베 레자세움 칼렉션 아이클러 필러드 글레드보 보베 세대의 발색원은 언제나 믿을 만하다. 다크 브라운과 누드 핑크, 골드 컬러 등 한국 여성들이 애용하는 베이스 컬러뿐 아니라 블루와 다홍빛의 글로시 로즈 등 특별한 날을 위한 포인팅 컬러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뉴욕 베이스의 컨셉퍼머니티 아티스트 에슬리 롱쇼와 함께 완성한 우아한 패키지도 소장 욕구를 자극한다. 9g 15만8천원, 문의 080-564-7700. *by 에디터 이지연*

나스 아비엘리스 마스카라 통성한 볼륨과 아찔한 컬링, 롤러까지 마스크라가 갖춰야 할 모든 것이 적용되어 있다. 2백 개 이상의 강모와 후크로 이루어진 브러시 덕분에 완벽한 컨트롤이 가능한 것. 끝부분이 좁아지는 형태라 속눈썹 안쪽과 바깥쪽, 아래 속눈썹까지 마스카라 액이 닿거나 번지지 않아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8ml 3만8천원, 문의 02-6905-3747. *by 에디터 이지연*

톱 포드 뷰티 벨벳 오가드 퀴아에르 매력적인 플로럴 오리엔탈 계열로, 관능적이고 성숙한 여인의 향을 떠올리게 한다. 베르가모트와 민들레 등 톱 노트에서는 프레스향, 미들 노트에서는 벨벳 오가드 어요드, 터키산 로즈 오일 등 매혹적인 플로럴 향이 느껴진다. 그리고 샌들우드와 베이스 노트가 풍부하고 리듬적인 향으로 마무리된다. 50ml 14만원대, 문의 02-3440-2750. *by 에디터 이지연*

이노퍼머니티 더 에센셜 클루어디 풍부한 텍스처와 낙낙한 용량, 에센스에 비견되는 촉촉함까지, 만족할 만한 요소를 고루 갖췄다. 특히 일 1백50장에서 추출한 티 에센셜을 함유한 영양 성분을 마이크로 캡슐에 담아 흡수력과 전달력 모두 뛰어나다. 90ml 11만원대, 문의 080-020-5757. *by 에디터 배미진*

아베다 플라자라 페이스 드라이 브러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얼굴에 브러시를 한다면? 림프관을 자극해 노폐물을 배출하고 각질 제거까지 도와주는 새로운 도구 가 탄생했다. 화이트 컬러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드라이 브러시는 핏팅과 리우팅을 위해 제작한 아이템으로, 아침을 여는 새로운 도구다. 곡선을 그려며 얼굴 전체를 마사지하면 된다. 5만5천원, 문의 02-3440-2905. *by 에디터 배미진*

리프레이 스킨 케어 에센스-인-로션 클렌징 후 바로 사용하는 프리 세럼. 케 비아 유타와 캐비어 추출물, 셀룰라 콜로이드 등 리프레이의 핵심 요소를 모두 담았기에 마니하는 물론 리프레이에 입문하는 여성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이다. 2~3원율만으로도 얼굴 전체에 충분히 바를 수 있을 정도로 촉촉하다. 150ml 29만5천원, 문의 080-511-6626. *by 에디터 배미진*

베네티트 베네티트 리미티드 에센 베네티트의 스테디셀러 제품인 베네티트의 콜라데이 한정판 에디션으로, 스낵 기가치 총본다. 한 손이 잡히듯 아름다운 보트에 담겨 있으며, 입술과 두 볼을 탐스러운 장미빛으로 물들여준다. 10ml 4만 5천원대, 문의 080-001-2363. *by 아스틴트 김수민*

조르지오 아르마니 립 마그넷 린트와 리퀴드 정장만 모아 린트보다 얇게 발리며 라카보다 강렬하고 티투처럼 오랫동안 지속된다. 또 인크 팬츠에서 영감을 받은 애플리케이션 덕분에 양을 조절하기 쉬우며, 끝이 뾰족한 세이프론 입술 선을 그릴 때 유용하다. 3.9ml 4만4천원대, 문의 080-022-3332. *by 에디터 이지연*

르네쉴레르 포티사 스틱클레이빙 샴푸 일명 초록 알갱이 샴푸라 불리며, 르네쉴레르가 한국에 정식 론칭되기 이전부터 유명했던 제품. 특히나 현대 여성들의 고민, 탈모 예방에 효과적인 에센셜 오일을 캡슐화한 바이오 스피어가 두피를 탄탄하게 가꿔줘, 모발의 힘과 볼륨감을 업그레이드한다. 200ml 2만6천원, 문의 1899-4802. *by 에디터 이지연*

캘리포니아에이모알 골드 아이테크 세럼 활활기 건조함에 사들리는 눈가에 강력한 수분과 힘을 부여해주는 세럼이다. 골드 핑거 애플리케이션으로 눈가 안쪽부터 바깥 쪽으로 피부를 그려듯 마사지해주면 제품이 잘 흡수돼 더욱 효과적인 주름 관리가 가능하다. 15ml 16만8천원대, 문의 080-343-9500. *by 아스틴트 김수민*

샤넬 N5 보디 오일 N5의 매혹적인 향과 부드럽고 매끄러운 보습력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스프레이 타입의 보디 오일. 샤워 후 타월로 물기를 가볍게 닦아내고 이 보디 오일을 몸 전체에 칙칙 뿌려주면 2번하고 우아하게 피부에 활과 촉촉함을 더할 수 있다. 향수에 비해 은은한 향을 발산하기 때문에 지기 전에 발라도 부담스럽지 않다. 200ml 12만4천원, 문의 080-332-2700. *by 에디터 권유진*

바이에도 모하비 고스트 보디 크림 모하비 사막의 척박한 환경에서 피어내는 고스트 플라워의 강인한 생명력에서 영감을 얻은 모하비 고스트 향수의 깊고 그윽한 플로럴 향을 담았다. 여성스럽고 러블리한 꽃향기가 아닌 부드러운 인브레드, 샌들우드, 묵연 향이 어우러진 플로럴 노트로, 이국적이고 유니크한 향이 돋보인다. 단독으로 사용하면 향을 가볍고 은은하게, 향수와 함께 사용하면 깊은 향을 오래 즐길 수 있다. 200ml 10만5천원, 문의 02-3479-1688. *by 에디터 권유진*



reset your Skin

지나간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눈가와 미간, 팔자 주름만 잘 관리해도 아름다운 인상으로 가꿀 수 있다. 데코르테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탄생한 신개발 복합 성분 아이피-솔루션(IP-Solution)이 함유된 아이피 샷으로 피부에 드러운 노화의 시인을 초기화하자.

데코르테의 힘, 피부 과학 기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센스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한 코스메틱 브랜드가 바로 데코르테라는 걸 아는지. 데코르테는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코스메틱 그룹, 고세(Kose)의 피부 연구와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든 하이 프레스리지 코스메틱 브랜드다. 1970년 론칭한 이후부터 화장품 연구 개발에 힘쓰며, 피부 과학에 새로운 획을 그을 뷰티 제품을 선보여 왔다. 데코르테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보라색 에센스, '모이스처 리포솜'이 대표적인 예. 이는 데코르테 연구진이 무려 8년간의 연구 끝에 탄생시킨, 유화 성분을 캡슐 안에 담아 필요한 곳까지 전달해주는 '리포솜 캡슐' 기술력을 적용한 에센스다. 이후 이 독보적인 딜리버리 시스템은 리포솜 라인뿐 아니라 데코르테 각 라인의 특성에 맞게 모든 스킨케어 제품에 변형해 적용하는 등 브랜드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자리 잡았다. 이뿐만 아니다. 데코르테는 '에멀션 퍼스트'라는 신개념 스킨케어 시스템을 제안하기도. 말 그대로, 기존 스킨과 로션으로 이어지는 평범한 기초 라인과는 정반대 순서를 말한다. 로션 제형의 에멀션을 세안 후 가장 첫 번째 단계에 바르고, 그 후 워터 타입 로션을 바르는 등 업계 최초로 뷰티 루틴의 고정관념을 바꾸는 새로운 발상을 제시한 것. 세안 직후 피부가 건조할 때 제일 먼저 바르는 제품이 가장 많이 흡수되기에, 데코르테에서는 에센스 성분이 함유된 에멀션을 제일 먼저 바르도록 권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데코르테만의 피부 과학을 응집한 또 하나의 제품이 탄생했다. 바로 일본 교토대학의 아미나기 신야 교수 연구팀과 산학 협력을 맺고 노화에 관한 오랜 연구 끝에 탄생시킨 주름 개선 에센스 아이피 샷(IP:Shot)이 그것. 이는 데코르테의 기술력과 연구 결과가 집약된 주름 기능성 제품으로, 뷰티 시장을 리드하는 브랜드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해줄 것이다.

노화의 기억을 초기화하다, 아이피 샷

데코르테의 노력과 집념이 응축된 아이피 샷은 눈가와 미간, 입가 등 노화의 시인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주름 개선 에센스다. 마치 주름 지우개처럼, 단 하나의 제품으로 얼굴에 드러온 모든 주름의 흔적을 자울 수 있다니 단연 눈여겨볼 만하다. 평소 에디터는 눈가에 바르고 남은 아이 크림을 입가 주위에 생김, 일명 팔자 주름에도 퍼 바르곤 했는데, 이 제품은 앞서 나열한 부위는 물론, 미간에 생김 실주름까지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라 요긴하게 쓰고 있다. 평소 말할 때 입가를 살짝 찌푸리는 버릇이 있는데, 매일 아침저녁 세안 후 쌀 한 톨 정도의 양으로 실주름이 생김 미간에도 집중적으로 케어해주니 실제로 주름 사이로 차오르는 미세한 탄력을 느낄 수 있었다. 에센스보다는 되직한 크림에 가까운 텍스처지만, 바르는 순간 산뜻하고 가볍게, 하지만 쫄쫄하게 피부에 착 밀착된다. 이렇듯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입증할 수 있었던 것은 데코르테의 신개발 복합 성분인 아이피-솔루션(IP-Solution)을 함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토코톨리엔올과 범포리 뿌리 추출물, 씨워드 추출물, 그리고 글리세린 복합체와 주름 개선 기능성 성분인 아데노신을 함유한 것이 바로 이 아이피-솔루션 복합체다. 이렇듯 데코르테의 특별한 기술력으로 완성한 아이피 샷은 주름과 탄력 저하, 윤기를 잃은 칙칙한 피부 톤 등 복합적인 세월의 흔적을 지우는 데 효과적이다. 쫄쫄한 밀도를 자랑하는 텍스처가 얼굴 전체에 탄력을 부여해, 주름의 원인을 완화하며 차원이 다른 매끄러운 피부결을 선사하기 때문. 이를 통해 40~60대 여성들에게는 젊었던 피부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30대 여성들에게는 언제 불현듯 찾아올지 모르는 노화의 신호에 맞서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 예방을 실현해줄 것이다. 20g 12만5천원, 문의 080-568-3111. *by 에디터 이지연*



1 세월의 흐름에 따른 노화의 흔적을 지우고, 젊었던 피부의 기억을 되살려주기 위한 고기능 주름 에센스 아이피 샷. 아미나기 신야 교수의 피부학 연구를 바탕으로, 눈가 미간과 주름이 생기는 부분에 생리 17에서 27%의 양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도포한다. 2 제품 패키지가 디자인에서도 볼 수 있는 에멀션 그린 컬러는 마치 SF 영화 속 장면과 같은 미래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이는 그만큼 빠른 효과를 반영한 것으로, 지름껏 얇은 그린 계열의 안티에이징 제품을 상정한다. 3 아이피 샷 제품. 4 데코르테만의 제품 연구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존.





시 여유를 즐기기 때문이다. 호시어 레인(Hosier Lane), 디그레이브스 스트리트 & 센터 플레이스(Degraves St. & Centre Place), 코즈웨이 & 에퀴타블 플레이스(Causeway & Equitable Place)가 CBD의 대표적 골목이다.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를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플린더스와 스완스톤(Swanston) 스트리트 사이의 호시어 레인 방문은 필수다. 그라피티 골목으로 불리는 호시어 레인에서는 그라피티 작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고, 밤이나 낮이나 사진이 잘 나오기 때문에 현지인도 즐겨 찾는다. 디그레이브스 스트리트 & 센터 플레이스는 길이 200m 정도의 아담한 골목인데, 노천카페와 레스토랑, 디자인 부티크 등이 가득하다. 클래식한 수제 문구점 '일 파피로(11 Papiro)'와 컵케이크 전문점 '리틀 컵케이크(Little Cupcakes)'가 유명하다. 골목 투어에서 아케이드를 빼놓을 수 없다. 먼저 1869년 개관한,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로열 아케이드(Royal Arcade)는 초콜릿 카페 '코코 블랙(Koko Black)', 모든 종류의 보드게임을 취급하는 '더 게임 숍(The Game Shop)' 등이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 블록 아케이드(The Block Arcade)에서는 모자이크 타일과 유리 돔 천장에서 19세기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전통 디저트 레밍턴(lamington)을 곁들인 애프터눈 티 세트로 유명한, 5대째 이어 내려오는 카페 '홉툰 티 룸스(Hopetoun Tea Rooms)', 3백 가지 향신료를 판매하는 '허브 & 스파이스(Herb & Spice)',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인형 가게 '다펠(Dafel)', 초콜릿 숍 '하이스 초콜릿(Haigh's Chocolate)' 등이 여행자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조금 걷다 다리가 아프면 트램(tram)을 타면 된다. 멜버른은 호주에서 트램이 연결되는 유일한 도시다.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트램이 곳곳을 연결해주는데, 2015년부터 도심에서는 무료로 탑승할 수 있게 되었다.

커피와 초콜릿, 와인과 미식의 도시

멜버른은 커피와 초콜릿, 미식과 와인의 도시이기도 하다. '호주의 커피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커피가 맛있고, 커피 문화가 발달했다. '브러더 바바 부단(Brother Baba Budan)', '디그레이브스 에스프레소 바(Degraves Espresso Bar)', '브루네티(Brunetti)' 등 도심 골목에 유명한 카페가 많고, 시티 주변인 리치먼드(Richmond), 세인트 킬다(St. Kilda), 피츠로이(Fitzroy), 프라한(Prahran) 지역에도 카페 거리가 형성되어 있다. 전통 깊은 초콜릿 바와 쇼콜라티에 학교도 많기에 초콜릿 투어를 감행하는 여행객도 있을 정도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연상시키는 초콜릿 천국 '야라 밸리 쇼콜라트리(Yarra Valley Chocolaterie)'도 꼭 포함시켜야 한다. 2012년 문을 연 공장으로, 벨기에 초콜릿과 현지 식재료로 만드는 초콜릿 과아이스크림은 이곳 빅토리아 주에서만 맛볼 수 있기에 더욱 특별하다. 식재료에 까다로운 미식가들에게 멜버른은 천국과도 같다. 멜버른에서는 굳이 오가닉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다. 날씨 좋고 환경이 깨끗한 빅토리아 주에서는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소, 돼지, 양은 드넓은 초원에서 자유롭게 자라며, 심지어 닭도 닭장에 갇혀 있지

marvellous Melbourne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호주라는 것을 아는지? 호주의 문화수도 멜버른(Melbourne)은 예술과 자연의 도시, 커피와 초콜릿의 도시, 미식과 와인의 도시로 알려져 있다. 골드러시 시대의 고풍스러움과 21세기의 혁신이 공존하는 멜버른에서 치유와 낭만을 경험했다.

여행한다는 것은 잠시 그곳에서 사는 것이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열어 숨쉬는 것이고, 새로운 일상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자를 결정할 때 심사숙고하며 즐거운 고민에 빠지게 된다. 영감과 에너지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곳, 어찌면 삶의 가치관까지 바꿀 수 있는 곳을 선택하기 위해서다. 때로는 여행을 통해 결핍을 충족하고 싶은 욕망을 투영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남녀노소 아등바등 사는 것이 미덕이기에, 삶의 질이 높은 나라를 여행하러 가거나 경험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것 같다. OECD가 매년 발표하는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에서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독식한 가운데, 가장 여러 번 '살기 좋은 나라 1위'를 기록하는 나라가 바로 호주다. 더 나은 삶 지수는 환경, 건강, 삶의 만족도, 일과 삶의 균형, 안전, 시민 참여, 주거, 소득, 직업, 공동체, 교육 등 11개 부문을 평가하는 지표다. 호주는 평균 초미세 먼지(PM2.5) 농도가 5.9ug/m³로 '공기가 가장 깨끗한 나라 1위'이기도 하다. 호주의 문화수도, 멜버른을 산책하며 왜 이곳이 세계 최고의 나라로 선정되었는지 탐색해보는 것은 어떨까?

뉴욕보다 인구당 예술가 비율이 높은 도시

멜버른은 호주 남동부 빅토리아(Victoria) 주의 주도, 호주에서 극장과 갤러리, 박물관, 공연장 등이 가장 많은 문화 예술의 도시다. 인구당 예술가 비율이 뉴욕과 샌프란시스코보다 더 높은 예술가의 도시이기도 하다. 멜버른 아트 여행은 플린더스 스트리트 역(Flinders Street Station)에서 시작된다. 이곳은 1854년 세운 최초의 기차역으로 멜버른의 랜드마크이자 교통 중심지로 여전히 군림하고 있다. 고풍스러운 기차역 바로 맞은편에는 현대적 디자인의 페더레이션 광장(Federation Square)이 펼쳐진다. 페더레이션 광장은 일종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매일 크고 작은 공연이 열리며, 스포츠 경기가 있는 날에는 시민들이 모여 전광판을 보며 응원을 펼치곤 한다. 광장 뒤편에는 호주영상박물관(ACMI), 내셔널 디자인 센터(National Design Centre), 국영방송국 SBS 등이 위치한다. 호주영상박물관은 서울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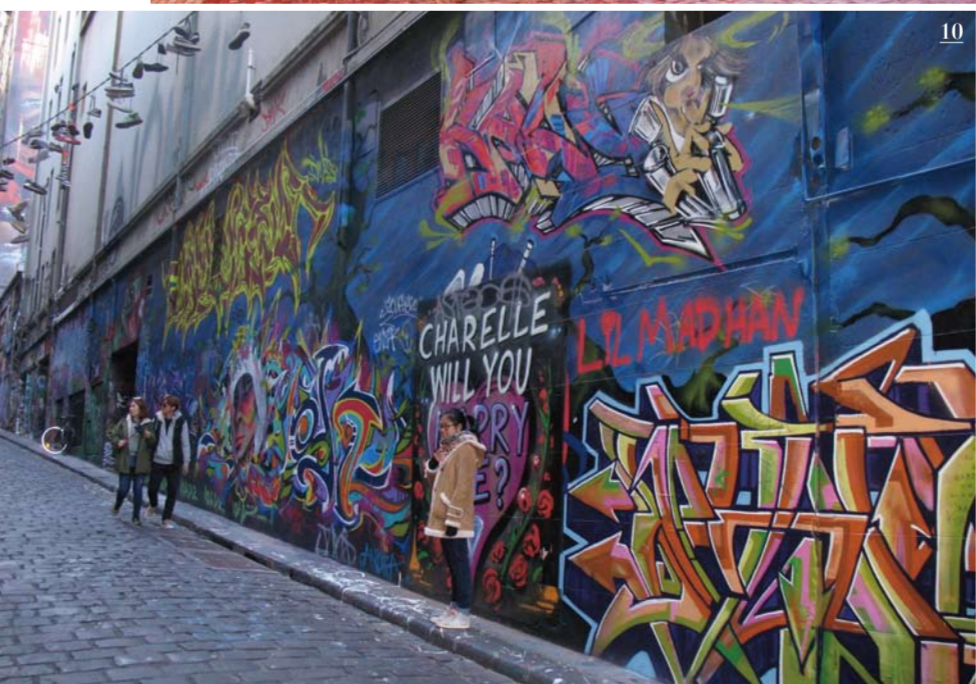
립미술관에서도 열린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특별전>을 처음 기획한 곳으로, 최근에는 영화 감독 마틴 스코세이지(Martin Scorsese) 회고전이 열렸다. 부근에는 발레리나의 하얀 튀튀를 철골로 형상화한 아트 센터(The Art Centre)와 국립미술관(NGV)도 있다. 아트 센터의 건축 디자인은 특히 환상적인 야경을 선사하는데, 마치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호주 발레단과 호주 발레 학교의 고고한 위상을 상징하는 듯하다. 국립미술관은 빅토리아 주립 갤러리 부설 이언 포터 센터 NGV 호주(The Ian Potter Centre: NGV Australia)와 NGV 인터내셔널(NGV International) 두 곳으로 이루어져 있다. NGV 호주는 원주민인 아버리지니(Aborigine) 예술의 독창성을 알리고 있고, NGV 인터내셔널에서는 호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현대미술 전시가 열린다. 근래에는 내년이 서기 1백 주년을 맞는 미술가 에드가 드가(Edgar De Gas) 전시가 열렸다.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시간의 블랙홀을 산책하다

파리에 센 강이 있다면, 멜버른에는 야라 강(Yarra River)이 있다. 플린더스 스트리트 역 부근의 문화 예술 관련 건물과 주요 랜드마크가 야라 강변을 따라 펼쳐져 있으며, 분위기가 좋은 레스토랑과 카페도 이어진다. 그래서 멜버른은 산책하기 좋은 도시이기도 하다. 구획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를 들고 산책하는 것도 좋지만, 여행자를 위한 골목 투어인 '히든 시크릿 레인스 & 아케이드 투어(Hidden Secrets Lanes & Arcades Tour)'를 신청하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이곳은 1800년대 골드러시 시대에 유럽과 미국,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일군 도시답게 서로 다른 문화가 어우러진 화려한 건축물과 문화를 통해 전통과 자부심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CBD(Central Business District)의 영국풍 건축물 사이의 골목을 산책하다 보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 수도의 매력을 실감할 수 있을 것. 관광사와 회사가 몰려 있는 CBD는 오전 6시부터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한다. 멜버너인(Melbournian)들은 아침으로 커피와 바게트 샌드위치를 먹으며 출근 전 잠



1, 2 플린더스 스트리트 역 인근에 위치한 국립미술관(NGV)과 호주영상박물관(ACMI). 아트 숍에는 다양한 아트 상품이 구비되어 있으며 쇼콜라트리 관련 구입을 지원해 줄 것 같다. 3 발레리나의 튀튀에서 영감을 얻어 완성된 우아한 아트 센터. 4 그레이트 오션 로드는 특히 일출 풍경이 아름다운데, 해가 지면 12사도가 보랏빛과 군청색으로 색을 바꿔가며 여행자를 압도한다. 5 멜버른의 랜드마크이자 호주 최초의 기차역인 플린더스 스트리트 역의 풍경. 6 야라 밸리 쇼콜라트리에서는 빅토리아 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초콜릿을 판매한다. 7 멜버른 문화의 중심지인 페더레이션 광장의 야경. 8 인화영화(도마스와 친구들)에 영감을 준 증기기관차 퍼핑 빌리. 9 퀸 빅토리아 마켓의 신선한 농산물. 빅토리아 주는 농약과 비료를 쓰지 않는 오가닉의 천국이다. 10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촬영으로 유명한 그라피티 골목 호시어 레인. 11 빅토리아 주에는 영벵개개의 와이나라가 있으며, 도메인 상동(Domaine Chandon), 예링 스테이션(Yering Station) 등이 유명하다. 12 모닝턴 페닌슐라 핫 스프링의 여유로운 풍경.



SHOWROOM



그라프 보 컬렉션 그라프는 여성스러운 리본 모양이 돋보이는 주얼리 컬렉션 '보' 컬렉션을 소개한다. 귀족들의 옷에 보석을 부착하기 위해 사용하던 리본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컬렉션으로, 리본 본연의 움직임을 생생하게 표현해 미치 손으로 직접 맺듯 자연스러운 디자인이 특징이다. 테이퍼형한 바게트 다이아몬드와 피에 세팅한 다이아몬드가 유려한 곡선을 따라 눈부신 광채를 발산한다. 알티 세이프 에 메탈과 다이아몬드를 사용한 버전과 알티 세이프 다이아몬드만 세팅한 버전으로 선보인다. 문의 02-2256-6810

오메가 컨스텔레이션 마스터 크로노미터 스몰 세컨즈 오메가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워치인 컨스텔레이션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타임피스 '컨스텔레이션 마스터 크로노미터 스몰 세컨즈'를 선보인다. 9시 방향에 스몰 세컨즈를 적용한 이 시계는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첫 여성용 시계로, 착용자에게 시계의 정확성과 성능에 대한 믿음을 심어준다. 스테인리스 스틸과 18K 레드 골드의 조화가 우아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을 선사하며, 다이아몬드를 피에 세팅한 베젤과 소프트한 화이트 색상의 머더오브월 다이얼이 여성

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문의 02-511-5797

론진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EAST 매장 오픈 론진은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EAST 1층에 론진의 다채로운 타임피스를 만날 수 있는 매장을 오픈한다. 이 매장은 고급스러운 네이비와 미온기니 컬러로 꾸며 론진만의 우아한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2016 바젤 신제품인 돌체비타 스틸 & 골드 모델을 포함해 론진의 베스트 레이디 컬렉션으로 자리 잡은 돌체비타 컬렉션을 가장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 편안한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워치메이킹 트레이닝을 시작으로 알레강트, 스포츠, 헤리티지 등의 컬렉션을 고객 동선에 맞추어 전시한다. 오픈을 기념해 한 달간 4백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스트랩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에 한해 론진 넥타이와 트래블 수트케이스를 증정한다. 문의 02-6905-3519

에르메스 포브르 만쉐트 주얼리 에르메스는 유려한 곡선의 가죽 스트랩과 보석 세팅이 멋스러운 여성 워치 '포브르 만쉐트 주얼리'를 선보인다. 에르메스 공방 가죽 재단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이 시계는 세들 스티치기법으로 만든 악자구 스텝이 손목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수작업으로 완성한 36개의 바게트 컷 보석을 세팅한 케이스가 눈부신 광채를 발산한다. 국내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에르메드를 세팅한 그린 컬러 버전이 입고될 예정이다. 문의 02-3015-3283

몽블랑 보헨 데이 앤 나잇 몽블랑은 낮과 밤이 바뀌는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한 여성용 워치 '보헨 데이 앤 나잇'을 30mm 사이즈로 새롭게 선보인다. 이 시대의 우아한 여성을 위해 탄생한 보헨 컬렉션의 제품으로, 실

아우디 코리아 2016 아우디 트윈컵 서비스 부문 1위 아우디 코리아는 월드 챔피언십 2016 아우디 트윈컵에서 한국팀이 서비스 부문 1위를 거머쥐었다고 밝혔다. 올해로 21회를 맞은 아우디 트윈컵은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황에 실제 고객 응대 및 정비 기술을 겨루는 연례행사다. 한국팀은 2013년 종합 우승, 2015년 서비스 부문 2위 수상에 이어 2016년 서비스 부문 1위를 차지하며 세계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문의 02-6009-0000

오비맥주 비어 마스터 클래스 오비맥주는 맥주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프로그램 '비어 마스터 클래스'를 운영한다. 잘 알려지지 않은 맥주의 매력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맥주의 기원, 역사, 예술, 흥미로운 사실 등 맥주를 통해 삶의 다양한 영역을 조망한다. 전 세계 다양한 맥주를 시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다. 오비맥주의 이천공장에서 진행되는 비어 마스터 클래스는 카스 페이스북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www.facebook.com/Cass.kr

에르메스 <Wanderland(파리여행의 산책)> 전시 개최 에르메스는 신작을 테마로 한 전시 <Wanderland(파리여행의 산책)>를 국내에 선보인다. 런던 사치 갤러리, 파리 센 강의 포르드 스페리안, 그리고 두바이 몰의 분수대 선착장에서 개최한 전시로, 신작의 2가지 요소인 꿈과 자유로운 영혼에서 영감을 받아 기획되었다.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 작품으로 꾸민 11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파리 광장, 숨겨진 통로, 오버제가 있는 카페 등 흥미로운 공간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얻을 수 있다. 11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한남동 디뮤지엄(D MUSEUM)에서 개최한다. 문의 02-542-6622

아우디 코리아 아우디 코리아는 11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한남동 디뮤지엄(D MUSEUM)에서 개최한다. 문의 02-542-6622

오비맥주 오비맥주는 맥주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프로그램 '비어 마스터 클래스'를 운영한다. 잘 알려지지 않은 맥주의 매력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맥주의 기원, 역사, 예술, 흥미로운 사실 등 맥주를 통해 삶의 다양한 영역을 조망한다. 전 세계 다양한 맥주를 시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다. 오비맥주의 이천공장에서 진행되는 비어 마스터 클래스는 카스 페이스북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www.facebook.com/Cass.kr

에르메스 에르메스는 유려한 곡선의 가죽 스트랩과 보석 세팅이 멋스러운 여성 워치 '포브르 만쉐트 주얼리'를 선보인다. 에르메스 공방 가죽 재단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이 시계는 세들 스티치기법으로 만든 악자구 스텝이 손목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수작업으로 완성한 36개의 바게트 컷 보석을 세팅한 케이스가 눈부신 광채를 발산한다. 국내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에르메드를 세팅한 그린 컬러 버전이 입고될 예정이다. 문의 02-3015-3283

LIFESTYLE

FASHION



아이진바바 데일리 시크 록 아이진바바는 트렌디한 스타일과 실용성을 갖춘 데일리 시크 록을 제안한다. 온화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크린 컬러 V넥 원피스는 실크 소재의 사선 처리한 소매가 특징으로, 몸을 타고 흐르는 자연스러운 실루엣이 여성스럽다. 여기에 치분한 버건디 컬러 코트를 매치해 편안함이 느껴지는 모던 룩을 완성했다. 스타일링에 사용한 모든 아이템은 아이진바바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2-6960-0702

파비어나 필리피 퍼 포인트 코트 파비어나 필리피는 품격 있는 스타일을 완성해줄 퍼 포인트 코트를 선보인다. 캐시미어 중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는 히르쿠스(Hyrus) 고트 소재로 제작해 착용감이 뛰어나다. 심플한 실루엣과 더블 버튼 디테일이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며, 칼라에 부드러운 인모 퍼를 부착해 여성스러움을 더해준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EAST, 롯데 에버뉴엘 월드타워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현대백화점 본점·무역센터점·목동점·판교점, 그리고 AK플라자 분당점 등의 파비어나 필리피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6905-3626

브루넬로 쿠치넬리 헤링본 코트 브루넬로 쿠치넬리는 울거울을 위해 클래식한 스타일을 연출해줄 남성 헤링본 코트를 출시한다. 심플하면서도 클래식한 디자인의 헤링본 코트는 바진 울과 캐시미어 혼방 소재로 제작해 뛰어난 보온성과 유연성을 갖췄다. 가을을 담은 차분한 브라운 컬러의 헤링본 패턴이 멋스러운 이 코트는 포말한 팬츠는 물론, 스트링 팬츠, 데님과도 잘 어울려 활용도가 높다. 브루넬로 쿠치넬리의 강성인 담긴 헤링본 코트를 스타일과 보온성을 겸비한 스타일을 즐겨보자. 문의 02-3448-2931

리틀팬진 론칭 1백 일 기념 이벤트 리틀팬진은 브랜드 론칭 1백 일

을 기념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 달리아 최고의 재나 원단을 소재로 한 핸드메이드 키즈 수트를 출시하는 리틀팬진은 론칭 1백 일을 기념해 시즌에 맞춰 한 플로어에서 행사를 개최해 고급 원단으로 제작한 클래식하고 귀여운 의상을 접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 캠페인 촬영을 함께 한 키즈 모델을 초청하고 화가에게만 분위기를 조성해 눈길을 끌었다. 문의 070-7628-0505

만성웨어 필드 다운 만성웨어는 봉제선을 없애 편안한 움직임을 선사하는 다운 재킷 '필드 다운'을 출시한다. 새봄에 선보이는 필드 다운은 충진재를 한번에 주입할 수 있는 튜브 패브릭을 활용해 일관된 두께를 자랑한다. 또 어깨와 옆구리 부분에 저지 패치를 더해 스윙 자세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 만성웨어 장재는 선수는 '여자 선수는 스타일에도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다운 재킷을 선호하지 않는다. 필드 다운은 가벼우면서도 핏감이 좋아 자주 입게 된다'라며 착용 소감을 밝혔다. 문의 02-2007-3343

자이베티스타 발리 캐시미어 니트 자이베티스타 발리는 다가오는 겨울을 맞아 2016 F/W 컬렉션의 캐시미어 니트를 제안한다. 생생하게 완성된 화려한 디테일과 페미난한 실루엣으로 사랑받는 자이베티스타 발리는 2016 F/W 메인 컬렉션을 통해 V넥 니트를 선보였다. 부드러운 감촉을 선사하는 캐시미어 만들어 고급스러운 느낌을 자아내며, 비즈로 완성된 플로럴 장식을 더해 여성스럽고 우아한 스타일을 연출한다. 블랙 컬러로 출시해 풍성한 디자인의 여성스러운 스카프, 데님 팬츠 등 어떤 차림에 매치하든 잘 어울린다. 갤러리아 명품관 EAST에 위치한 자이베티스타 발리 부티크에서 판매한다. 문의 02-6905-3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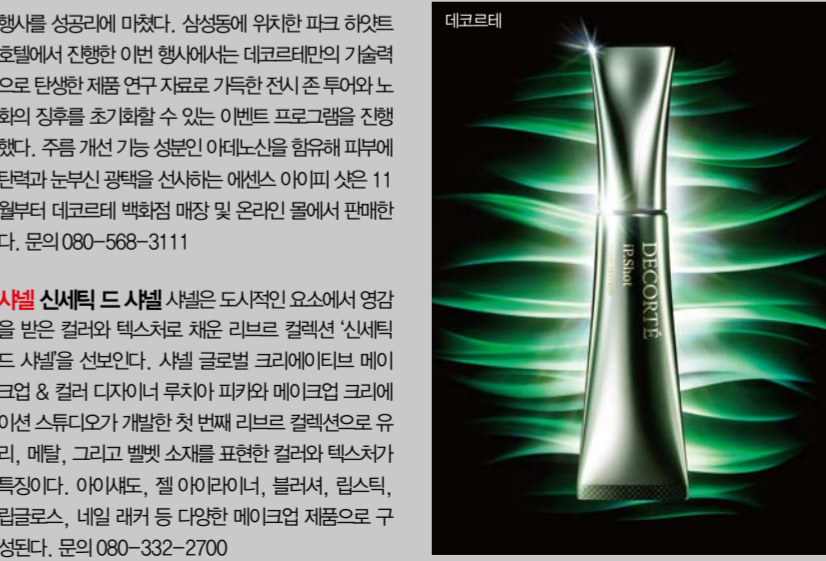
BEAUTY

라프레리 스위스 켈루라 아이스 크리스탈 드라이 오일 라프레리는 건조한 피부에 강력한 힘을 더해줄 스위스 켈루라 아이스 크리스탈 드라이 오일을 추천한다. 피부 산소화, 솔라셀과 알파, 스노 엘지 등 스위스 알프스에서 생선하는 식물 성분은 담은 스위스 켈루라 아이스 크리스탈 콤플렉스가 각종 외부 환경으로 건조해진 가칠어진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토너 다음 단계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미치 세럼을 바른 듯 가볍게 스며들며 건강한 윤기를 더해준다. 문의 080-511-6626

랑콤 제니피크 프로바이오틱스 에센스 리미티드 에디션 랑콤은 환경에 반박스러운 날씨로 손상된 피부를 건강하게 가꿔줄 '제니피크 프로바이오틱스 에센스'의 대용량 버전을 한정판으로 출시한다. 유산균 추출 성분인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한 이 에센스는 피부 보호막을 강화하는 효과가 뛰어나다. 또 비피다 발효 용해물과 효모 추출물을 함유해 탁월한 보습 효과를 제공한다. 100ml 용량으로 한정 판매한다. 문의 080-001-9500

SK-II 2016 피터라 에센스 리미티드 에디션 SK-II는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2016 피터라 에센스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한다. 브랜드의 베스트셀러인 피터라 에센스를 활용한 이번 리미티드 에디션은 '피터라' 방식이 모여 기적을 선사하는 피터라 에센스에 단 한 방울도 헛되이 하지 않는다는 철학이 담긴 전통 예술 기법 스마니-키의 소용돌이 무늬 디자인을 새긴 것이 특징이다.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특별한 선물이 되어줄 2016 피터라 에센스 리미티드 에디션은 레드, 블루, 그리고 그린 컬러로 선보인다. 문의 080-023-3333

데코르테 아이피 샷 론칭 행사 데코르테는 주름 개선 효과가 뛰어난 에센스 아이피 샷 IP.Shot 론칭



JEWEL & WATCH